제 9 편 문화재

제 1 장 동두천의 문화재
제 2 장 일반 기념물
제 3 장 전통 건축물과 고문서
제 4 장 유적지

여 백

제 1 장 동두천의 문화재

제 1 절 문화재의 개념

보통 문화재라고 하면 인류의 문화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물(事物) · 사상(事象)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유형은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 기념물(記念物) · 민속자료(民俗資料) 등으로 구분된다(〈개정 문화재보호법〉 2조).

첫째, 유형문화재는 건조물(建造物) · 전적(典籍) · 서적(書籍) · 고문서(古文書) · 회화(繪畵) · 조각(彫刻) · 공예품(工藝品)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한다.

둘째, 무형문화재는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셋째, 기념물은 패총 · 고분(古墳) · 성지(城址) · 궁지(宮址) · 요지(窯址) · 유물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경승지 · 동물 · 식물 · 광물로서 우리 나라의 역사상 · 예술상 · 학술상 또는 관상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넷째, 민속자료는 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 ·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품구 · 가옥 · 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한편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는데, 지정문화재는 문공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첫째,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제7조 1항), 보물 중 인류문화(人類文化)의 견지에서 중요한 것을 지정한다.

둘째,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제8조 1항),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기능보유자 : 인간문화재)를 인정한다(제8조 2항).

셋째,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史蹟) · 명승(名勝)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제9조).

넷째, 유형의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한다(제10조).

이상 지정된 문화재 이외에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54조 제2항), 지방문화재는 서울특별시장 · 부산시장 · 도지사가 이를 지정하여 문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2절 보물

1.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지정번호 : 보물 제1211호
지정년월일 : 1994년 10월 17일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 자재암
소유자 : 자재암(自在庵)
수 량 : 1권 1책
규 격 : 31×19.1cm
지 질 : 저지(楮紙)
판 종 : 목판본(木板本)
형 식 : 선장(線裝)
간행년대 : 세조 10년(1464)
저 자 : 한계희 등 국역
현 상 : 사주쌍변, 반곽 21.5×14cm, 유계, 반엽 8행 19자, 주쌍행, 묵구내향묵어미, 판심제는 심경, 교정인이 찍혀있음.

반야바라밀다심경 약소 언해본

진금강경심경전 : 刊經都監都提調 … 天順八年四月初七日 都提調推忠佐翼功臣大匡輔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南原府院君黃守身等謹上箋奉敎雕造
심 경 발 : 天順 八年(1468), 二月 仲斡嘉靖大夫仁順府尹臣韓繼禧謹跋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 책은 법장의 반야심경약소

에 송나라 중희의 현정기를 붙인 것을 교정하여 국역한 책이다. 권수에 금강경 심경전이 붙어 있어 세조 10년(1464)에 금강경과 함께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말의 한계희 발에 의하면, 왕명으로 효령대군과 함께 고승의 도움을 받아 교정하고 국역하였다.

이 판본은 현재 보물 제771호로 지정된 서울대학교 도서관본과 동일한 책이나 이곳에 없는 전이 붙어 있고, 교정인이 찍혀 있으며 보존상태는 보다 양호하다. 불상의 복장에서 나온 것인 듯 표지가 없다.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동두천시에서 발굴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매장 문화재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처럼, 4종류 19점이다. 즉 백자명기 16점, 철잔대 1점, 백자대접편 1점, 토기호형주자가 1점이다.

〈표 1〉 동두천시 발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명칭	수량	시대	발견장소	발견자	발견일
백자명기	16	조선	안흥동 318번지	이중열	1976. 12. 22
철잔대 백자대접편	1 1	조선	광암동 산13	조규진	1982. 9. 12
토기호형주자	1	조선	지행동 산3	유영상	1983. 10. 18

〈김 형 목〉

제3절 향토 유적

동두천시에 소재한 향토 유적은 현재 10개소이다. 향토 유적은 사패지 경계석 추모비, 신도비, 사당, 묘역, 삼충단 등 다양하다. 이러한 향토유적은 동두천의 역사를 대변하는 산물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향토유적 현황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1	사패지 경계석	생연동 379	6	정사호선생 신도비	안흥동 산21
2	목행선선생 묘역	지행동 산11	7	어유소장군 사당	탑동 168
3	홍덕문선생 추모비	상봉암동 산131	8	자재암	상봉암동 산1
4	어유소장군 신도비	광암동 산70-2	9	삼층단	상패동 105
5	탑동 석불	탑동 산21	10	고령신씨 신도비군	상패동 92

1. 사패지 경계석

사패지 경계석

지정번호 : 향토유적 1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성종 19년(1488)
소 재 지 : 동두천시 생연동 379번지
소 유 자 : 홍병일

사패지 경계석(賜牌地境界石)은 조선 초기의 무신 어유소(魚有沼, 1434~1489) 장군이 1488년 국왕인 성종(成宗)과 함께 어등산에 올라 사냥을 하다 나는 솔개를 쏘아 맞혀 그 솔개가 떨어진 지점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동두천시 일대를 사패지로 하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전해온다. 이 무인석(武人石)은 맞은 편 현 생연초등학교 후문 우측의 무인석과 대좌향을 이루고 있다. 일설에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복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입구 양쪽에 세웠다는 설도 전한다.

내행동 능안마을의 밭 한가운데 서있는 이 사패지 경계석은 일반 무인석보다 그 규모가 작으며, 머리 부분은 한국전쟁 때 그 일부가 파손되는 등 탄흔이 역력하다. 사패지 경계석을 통해 동두천시의 과거사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규모는 높이가 140cm, 폭이 47~50cm이다.

2. 목행선선생 묘역

지정번호 : 향토유적 2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조선 현종대
소 재 지 : 동두천시 지행동 산11번지
소 유 자 : 목종대

목행선선생 묘역

목행선(1609~1661)은 조선 중기 때의 문신으로 자는 행지, 호는 남간(南磵)이며 본관은 사천이다. 인조 8년(1630)에 진사가 되고 인조 11년(1633)에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로 장원하여 성균관 전적(典籍)과 예조 · 병조의 좌랑을 거쳐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는 경기도사로 있으면서 곤궁에 빠진 백성들의 진휼(賑恤)에 힘썼다. 그후 지평(持平), 수찬(修撰), 대사간(大司諫), 대사성(大司成), 승지(丞旨)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효종 4년(1653)에는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묘는 배위(配位) 파평 윤씨, 경주 이씨와 합부(合附)되어 있고 묘 앞 중앙에는 묘비 · 상석 · 향토석과 좌우에 망주석(望柱石)을 갖추었으며 묘역이 새로 단장되어 있다.

미수 허목(許穆)의 찬으로 된 원래의 묘비(좌축)는 백대리석으로 높이 133㎝, 폭이 61㎝, 두께 20㎝의 규모이다. 비 앞면은 한국전쟁의 탄흔으로 판독이 어려워서 1985년 5월 새로 옥개를 얹은 비를 세웠으며, 재질은 흑대리석(烏石), 규모는 높이 150㎝, 폭 55㎝, 두께 24㎝이다.

3. 홍병준선생 추모비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1975년
소 재 지 : 상봉암동 산131번지
소 유 자 : 동두천시

홍병준선생 추모비

홍병준은 구한말의 애국지사로 자는 덕문(德文),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복영(福永)의 아들로 고종 1년(1864) 10월 1일 동두천시 걸산동(傑山洞)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천성(天性)이 강직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품성을 지녔고, 충과 의를 중시하였다. 선생은 항시 한일합병에 대하여 분노하던 중, 1919년 대한 독립만세 소리가 경향 각지에 진동함을 기하여 동년 음력 2월 25일 동두천 장날 정오에 1천여 명의 군중을 인솔하고, 선두에서 만세 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악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방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연창(連唱)하는 백절불굴의 의지를 보였다. 형기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왜경이 가한 형독(刑毒)으로 1923년 5월 17일 걸산동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이후 선생의 빛난 얼을 되새겨 의열(義烈)의 감(感)을 후세에 지표로 삼기 위하여 1975년 동두천노인회 주관으로 독립유공자추모회(위원장 김석경)를 결성하여 시민의 성금을 모아 높이 200㎝, 폭 80㎝의 추모비를 세웠다. 또한 1991년 6월 1일 선생의 고귀한 순국 이념과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김석경이 기탁한 성금으로 동두천 애향동지회 주관으로 비각(碑閣, 높이 : 5.7m, 폭 : 3.4m)을 건립하였다.

4. 어유소(魚有沼)장군 묘역

어유소장군 묘역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4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조선 성종대
소 재 지 : 광암동 산70-2번지
소 유 자 : 어성운

어유소(1434~1489)장군은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자는 자유(子遊), 본관은 충주이다. 세조 2년(1456) 무과에 장원한 후 세조 6년(1460) 야인 정벌에 큰 공을 세웠고 회녕부사를 거쳐 세조 13년(1467)에는 좌대장으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이 되어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지고 공조판서에 특진되었다. 그 해 겨울 명나라가 건주위(建州衛)를 칠 때 좌대장으로 큰 공을 세웠고, 예종 2년(1469) 함경북도 절도사, 성종 2년 좌리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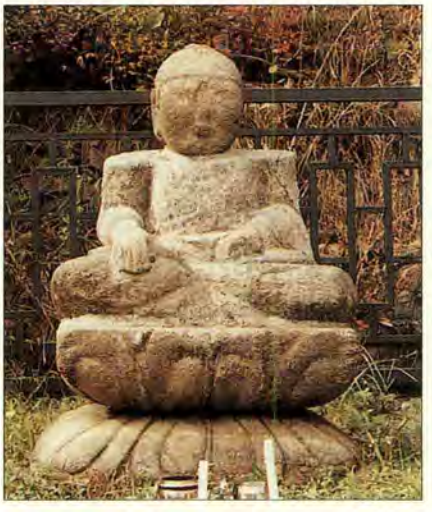
(左理功臣) 4등이 되고 두 차례나 영안북도(永安北道) 절도사를 지냈다.

이후 우참찬으로 도총관(都摠管)을 겸임했고, 병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냈다. 성종 10년(1479) 건주위 정벌 때 서왕대장으로 출전했으나 작전상 회군한 죄목으로 한 때 유배되었다가 다시 풀려나 도총관, 이조판서, 지중추부사, 영안도 순찰사를 역임했고, 성종 19년(1488) 판중추부사 겸 도총관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장이다. 묘는 배위 고령 신씨(高靈申氏)의 묘가 부전되어 있으며, 묘 앞에는 묘비 · 상석 · 무인석이 갖추어져 있다. 봉분 높이는 230㎝이다.

신도비는 투구형의 옥개(屋蓋)가 조각된 것이 특징이며 정장공신도비영(貞莊公神道碑銘)이란 전액이 확인될 뿐이다. 비문은 성종군 어세겸이 찬하고, 안심서의 전액으로 되어 있다. 신도비의 규모는 높이 158cm, 폭 68cm, 두께 20cm이다.

5. 탑동석불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5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고려 말
소 재 지 : 탑동 산168
소 유 자 : 최월용


탑동석불

고려시대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그마한 석불좌상(石佛坐像)이다.

지금으로부터 1백여 년 전 이 마을에 살던 배기주(裵基周)와 이우삼(李佑三)이 어느날 꿈에 부처가 현몽하므로 다음날 이곳을 파보니 땅속에 미륵좌상(彌勒坐像) 석불과 탑이 묻혀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건물을 세워 석불을 안치하고 극락암이라고 명명했는데 토지 소유자 이우삼이 일본인에게 탑을 매매한 후 이곳은 폐허가 된 채 석불만 남아 있게 되었다.

일설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대찰 회암사의 구 암자 중 한 암자가 있던 곳이라고도 전해온다. 마을 지명이 탑동이라고 유래하게 된 것도 바로 이곳에 탑과 석불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강암의 석불좌상은 연화문이 선명하게 조각된 대좌(臺座) 위에 항마좌(降魔坐)를 하고 있는데, 육계(肉鷄)의 오도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나발(螺髮)에서 수인에 이르기까지 심한 마모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얼굴 부분은 온화한 느낌을 준다. 석불좌상의 높이 80㎝, 최대높이 100㎝이다. 석불 주위에는 기와장과 주춧돌이 산재되어 있다.

6. 정사호선생 묘역

정사호선생 묘역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6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조선 광해군대
소 재 지 : 안흥동 산21번지
소 유 자 : 정영호

정사호(鄭賜湖, 1553~1616)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자는 몽여(蒙與), 호는 화곡(禾谷), 본관은 광주로 장령(掌令)을 지낸 이주(以周)의 아들로 태어나 선조 6년(1573) 사마시를 거쳐 선조 10년(1577)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주서(注書), 호조좌랑, 안동부사, 호조참의 등을 지내고 선조 35년(1602) 대사헌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이듬해 황해도 관찰사가 되고, 뒤이어 경상도 · 평안도 · 경기도 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1609년 선조가 죽자 이조참판으로 동지춘추관사를 겸하여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어 한성판윤을 거쳐 광해군 7년(1615) 형조판서에 올랐고, 얼마 뒤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글씨를 잘 써 당대에 많은 비문을 남겼다.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敏)이다. 묘 앞 중앙에는 '형조판서겸오위도총부도총관 정사호지묘' 라고 쓴 묘비 · 상석 · 향로석, 그 좌우에는 석인 · 문관석 · 망주석 등이 설비되어 있다.

묘 측면에는 배위 창원 유씨와 인천 채씨의 묘가 있다.

한편 묘소 아래 약 50m 지점에는 선생이 쓴 선고(先考) 이주의 신도비(神道碑)가 있고 그 옆에 정사호선생의 신도비가 서 있다. 비문은 유척기 찬, 한익모 서, 이천보 전액으로 되어 있

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가 153㎝, 폭은 56㎝, 두께는 29㎝이다.

7. 어유소장군 사당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7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조선 성종대
소 재 지 : 탑동 168번지
소 유 자 : 어선용

어유소장군 사당

세조~성종대의 탁월한 무인 어유소(1434~1489)장군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본래의 사당은 광암동(좌기동) 묘소 아래에 있었으나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수탈이 심해 현재의 위치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본래의 사당건물은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지고 최근에 목조건물을 신축하고 막돌 흙담을 둘렀다. 사당 안에는 제상과 성종 20년(1489)에 만들어져 전해오는 오동나무 재료를 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위패는 가로 10㎝, 세로 13㎝의 규격이다.

8. 자재암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8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신라 선덕왕 14년(645)
소 재 지 : 상봉암동 산
소 유 자 : 김선광

자재암

자재암은 신라 선덕여왕 14년(645)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서 고려 광종 25년(974) 왕명으로 각규대사(覺圭

大師)가 중창했으며, 의종 7년(1153) 화재를 당해 이듬해 각령선사(覺玲禪師)가 대웅전과 요사 일부를 증건했다.

조선 고종 9년(1872) 원공선사와 제암화상이 퇴락된 이 사찰을 44간의 건물로 복원하고 영원사(靈源寺)라 개칭했다. 순종 원년(1907) 정미의병 때는 이곳이 의병 활동의 근거지였던 탓으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불태워졌다. 이후 제암화상과 그의 제자 성파(性波)스님이 복원하여 원래 이름인 자재암으로 고쳤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다시 폐허가 되어 1961년 대웅전, 1971년에 요사, 1974년에 포교당과 원효대, 1977년에는 삼성각을 건립하였다.

경내와 주변에는 1980년에 조성한 석굴 · 추담대사 사리탑 · 속리교 · 세심교가 있다. 최초의 창건자 원효대사가 수행하는 동안 요석공주(瑤石公主)가 아들 설총(薛聰)을 데리고 와 머물렀다는 요석공주 궁지 · 사암사지 · 소요사지 · 현암지 · 원효사지 · 조선 태조 행궁지가 있다고 하나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의상대 · 나한대 · 금송굴 · 선녀탕 · 선녀폭포 · 청량폭포 등이 있어 경관을 더해주고 있다.

9. 삼충단(三忠壇)

삼충단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9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조선 초기
소 재 지 : 상패동 105번지
소 유 자 : 성균관유도회 동두천지부

삼충단은 단종 원년(1453)부터 세조 2년(1456)까지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왕위 찬탈(王位簒奪)에 항거하며 단종의 복위(復位) 운동에 가담했던 민신(閔伸) · 조극관(趙克寬) · 김문기(金文起) 등 세 충신의 호패비(號牌碑)를 모신 곳이다.

민신(?~1453)선생의 호는 둔암(遯菴),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문종(文宗) 때 병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단종 원년 계유정난(癸酉靖亂) 때 현능(顯陵) 비역(碑役)을 감독하던 중 김종서(金宗瑞)의 일파라 하여 비역소(碑役所)에서 참살당했다. 정조 때 복관(復官)되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이곳에 둔암(遯菴) 민선생(閔先生) 위(位)라고 쓰인 호패비가 있다.

김문기(?~1456)선생의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 본관은 금령(金寧)이다. 세종 8년(142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검열(檢閱) · 정언(正言) · 함길도 관찰사를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세조 2년(1456)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다가 처형되었는데 영조 때에 가서 복관(復官)되었고,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이곳에 백촌 김선생 위라고 새겨 놓은 호패비가 서 있다.

조극관(?~1453)선생의 본관은 양주이다. 태종 14년(1414) 문과에 급제한 뒤 세종 23년(1441) 우승지(右丞旨), 평안도관찰사를 거쳐 문종 원년(1451)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대사헌(大司憲) · 우참찬(右參贊)을 지냈다. 단종 원년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1453년 (계유정란)에서 김종서의 일파로 몰려 격살(擊殺)되었다.

곡담 내 대리석 호패비들은 각각 높이 67㎝, 폭28㎝, 두께 10㎝이며 삼충단의 규모는 정면 9.6m, 측면 7.2m이다. 1932년 9월 백촌의 후손 김항권이 양주 유림의 협조로 세웠으며, 해마다 춘추로 종정일을 택해 제사를 지낸다.

10. 고령 신씨 신도비군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0호
지정일자 : 1986년 4월 28일
시　　대 : 조선 숙종대
소 재 지 : 상패동 92번지
소 유 자 : 고령 신씨 문중

고령신씨 신도비군

고령 신씨(高靈申氏)의 신도비군(神道碑群)은 신용개(申用漑) · 신발(申撥) · 신량(申涼) 그리고 도로변 입구에 위치한 신익상(申翼相)선생 등 네 분이 포함된다.

본래는 남양주에 있는 고령 신씨 종산(宗山)에서 묘를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신용개(1463~1514) 선생의 자는 개지(漑之), 호는 이락정(二樂亭)이며, 조선 세조 때의 명신 신숙주(申叔舟)의 손자이다. 성종 19년(148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한 뒤 도승지, 대제학(大提學), 우참찬, 대사헌을 거쳐 이조 · 병조 · 예조의 판서, 우찬성을 역임했다. 다시 우의정(右議政)이 되고 중종 13년(1518)에는 좌의정에 올랐으며 시호는 문경이다. 신도비는 문경공신도비

명(文景公 神道碑銘)이라고 전자했고 비문은 이행의 찬(撰)이다. 이수(璃首)를 포함한 비의 총 높이는 256㎝, 폭은 85㎝, 두께는 20㎝이다.

신발(1523~1616)선생의 자는 제백(濟伯), 용개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여주(汝柱)이다. 효자의 아들로 천거되어 80세에 노인직(老人職)으로 당상(堂上)에 오르고, 90세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비의 전액(篆額)은 동지중추부사신도비명(同知 中樞府事 神道碑銘)이라 썼고 비문은 김상용의 찬이다. 비의 총 높이는 240m, 폭은 82cm, 두께는 27cm이다.

신량(1596~1663)의 자는 양지(養之), 호는 호은(湖隱), 발의 손자이며 응구(應榘)의 아들이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뒤 공조좌랑, 구례현감(求禮縣監)을 지냈다. 효종 때 군기시(軍器寺), 제용감(濟用監), 예빈시정(禮賓寺正)을 지냈다. 비 전면에는 증이조판서신공 신도비명(贈吏曹判書申公 神道碑銘)이라 각자되어 있고, 비문은 박세채의 찬이다.

신익상(1634~1697)선생의 자는 숙필(叔弼), 호는 성제(醒齋)이며 양(滐)의 아들이다. 현종 2년(1661)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한 뒤 대사헌(大司憲)을 거쳐 숙종 20년(1694) 공조판서, 이듬해 우의정(右議政)에 올랐으며 시호(諡號)는 정간(貞簡)이다.

신도비의 앞에는 증시정간공 신도비명(贈諡貞簡公 神道碑銘)이라고 각자되어 있고, 비문은 윤극(尹極)이 찬했고 최석정(崔錫鼎)이 전했다. 비신의 높이는 285cm, 폭은 94cm, 두께는 90cm이며, 위에 옥개(屋蓋)가 씌워져 있다.

〈조 규 진〉

제2장 일반 기념물

제1절 도요지(陶窯址)

탑동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600m 되는 지점에 조선 초기부터 자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기에 그곳을 사기막골로 부른다.

한국전쟁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되고 서울의 모든 건물도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그러나 휴전 후인 1955년 경부터 국토가 재건되기 시작함에 따라 광암동의 산야에도 구둘장〔溫突石〕 산판이 마구 파헤쳐지기 시작하여 자기가마도 보존되지 못하는 수난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자기가마가 원형으로 남아 있었으나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파손되어 지금은 형태만 있고, 주변에는 자기 파편들이 흩어져 있어 그 옛날 위대한 백자문화의 자취를 증명해 주고 있다.

제2절 석조물

1. 기념비

1) 현충탑(顯忠塔)

현충탑

동두천시 생연동 산47번지에 있다. 부지 4,500평에 기단면적이 705평이다. 규모는 탑신(塔身)이 15m, 좌·우 양편의 좌상이 날개벽 위에 있다.

현충탑의 휘호(揮毫)는 진만현(당시 군

수)의 친필이며, 1978년 4월 21일 착공하여 6월 6일에 준공되어 제23회 현충일에 제막되었다. 탑의 모형과 설계는 이일녕화백이 하였고, 비문은 다음과 같이 동판(銅板)에 각자되었다.

〈비문〉

나라 위해 몸 바친 호국(護國)의 님이시여! 여기 군민의 정성으로 그 위훈(偉勳) 기리오니 겨레의 빛이 되어 그 뜻 영원(永遠)하소서!

〈작품설명〉

중앙 삼각기단 위에 우뚝 솟은 15m의 삼각탑신은 고귀한 희생을 밑거름으로 발전 · 번영하는 조국을 상징하고, 양단에 정의 · 충성을 맹세하는 구국용사상을 조각하였다. 중앙 탑신에서 양단으로 뻗쳐 나간 반월형 날개벽은 호국의 방패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호국영령의 충 · 의 · 위훈을 기리는 동시에 엄숙하고 겸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순수 예술작품의 경지로 승화시켰다.

중앙탑 : 높이 15m, 폭은 아래 : 4m, 위 : 1.1m

날　개 : 높이 2.25m, 길이 9.42m×2기

좌　대 : 높이 2.75m, 길이 1.50m, 폭 1.15m

2) 충현탑(忠顯塔)

충현탑

충현탑은 1959년 2월에 경기도 전적비 건립위원회(위원장은 경기도지사 崔獻吉)에서 하봉암동 소요산 입구에 세웠다. 휘호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친필이다. 그동안 현충일 행사를 거행하다가 1978년 4월 생연동에 현충탑이 새로 세워지고, 이곳에서 현충일 행사가 거행됨에 따라 충현탑은 20여 년간 찾는 사람 없어 소요동 노인회 자체로 행사를 주도해 왔다. 더욱이 이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어 1995년 6월 생연동 현충탑 옆으로 이전시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현탑 비문〉

때는 폭우 뇌전 염열이 최고로 교첩(交疊)되던 성하(盛夏)의 단기 4284년 8월 17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동두천 북방고지를 연(連)하여 대공세를 취하려던 중공군 주력부대의 정예(精銳)를 미제 1기갑 사단의 용맹한 진지고수(陣地固守)와 화

력의 지원으로 방어하여 적에게 치명상을 주었으며 또한 우리 국군의 근접전은 적군에게 일대 충격을 가함으로써 적편의 기도를 완전히 분쇄시켰다. 우리의 치열한 원호와 반격으로써 적의 돌입을 저지 · 와해하였음은 국군과 연합군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이루어진 소치일 뿐 아니라 항시 우호하고 숭고한 협동정신과 최신무기의 적절한 운용으로써 이곳 동두천 작전에서 전투효과가 최고도로 발휘되었으며, 자유와 평화의 사도 연합군의 공격을 높이 찬양하는 바 대한의 수호신이 된 국군과 연합군 장병 1,238주의 영령들이여! 그 위훈(偉勳)은 천추에 드릴 것이오니 재천(在天)의 혼백은 고히 잠드시와 바라건대 이 땅에 평화의 서광을 영원히 조국과 더불어 빛내주소서!

3) 벨기에 · 룩셈부르크 참전기념탑

벨기에 · 룩셈부르크 참전기념탑

상봉암동 소요산 입구 북쪽에 위치한 이 탑은 한국전쟁 때 UN군으로 참전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군의 전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1975년 9월 26일 국방부에서 제작 · 건립하였다.

참전약사(탑신에 새겨진 글)

벨기에군(지상군 1개 대대)와 룩셈부르크군(지상군 1개 소대)은 1951년 1월 31일 정의의 십자군으로 파한되어 용전분투하다가 1956년 6월 15일 본국으로 개선한 군대이다. 여기 여러 나라의 국민과 후손들에게 그 뜻을 전하고자 그들이 남긴 찬란한 전력과 지휘관들의 이름을 새긴다.

당시 참전군의 전투 현황과 벨기에 · 룩셈부르크 역대 지휘관은 〈표 1〉 · 〈표 2〉 · 〈표 3〉과 같다.

〈표 1〉 역대 지휘관(벨기에군)

대 수	계 급	성 명	대 수	계 급	성 명
2대	중 령	르베르 클스	5대	중 령	살르 보다르
3대	중 령	죠지 비바리오	6대	중 령	레이몽 뻴로
초대	중 령	알베르 · 크라히	4대	중 령	르베르 가려

〈표 2〉 전투 상황

일 시	전 투 내 용	비 고
1950. 7.22	벨기에와 룩셈브르크 정부 한국전 파병 결정	
1951. 1.31	지상군 부산 도착.	
1951. 4.22 ~ 51. 4.25.	금굴산, 마차산 지구(연천)전투	
1951.10.11 ~ 51.10.13	학당리(철원)전투	
1952. 1.19 ~ 53. 1. 5	연천지구 방어작전	
1953. 1.20	개선귀국(룩셈부르크군)	
1953. 2.26 ~ 53. 4.21	잣골(김화)전투	
1953. 7.30 ~ 55. 6.24	유엔군방어작전, 지역(김하) 경계업무 수행	
1955. 6.15	개선귀국(벨기에군)	

〈표 3〉 역대 지휘관(룩셈브르크군)

대 수	계 급	성 명	대 수	계 급	성 명
초대	중 위	죠셉 와그네르	2대	중 위	르돌프 뤼띠

4) 노르웨이 참전기념비

〈비문〉

노르웨이 참전기념비

이 비는 노르웨이 정부가 서기 1951~1954년까지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부상 장병과 민간전쟁고아를 지원 의료사업으로 봉사하여 양국간의 우의를 증진했고, 우리 나라에 많은 공헌을 하였기에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70명이 병원 입구에다 정성을 모아 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기 1972년 3월 30일

종업원 대표 정 상 철

5) 반공희생자 위령탑

반공희생자 위령비

상봉암동 산1번지(소요산 입구)에 서 있다. 한국 반공연맹 동두천지부(지부장 신태룡)가 유관 기관과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1983년 12월 17일에 기공식을 하고 7개월의 공사로 1984년 7월 30일 준공된 탑이다.

건립 목적은 맨주먹으로 일어나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낸 군번없는 반공투사들의 숭고한 구국정신과 애국충정을 길이 추모하고 반공정신을 굳건히 다지고자 함이다. 탑의 높이는 12m, 폭 2m의 규모에 탑신이 3면으로 되어 있다. 탑신 3면에 새겨진 흑색선은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한 것이고, 화강석으로 쌓아 올린 70개의 대형돌은 동두천 7만 시민의 정성을 표하였다. 위패는 동두천에서 희생된 22위의 영혼과 황해도 반공의거 희생자 1천 4백 72위를 함께 모셨다.

2. 추모비

1) 독립유공자 추모비

〈건립기〉

독립유공자 추모비

유서깊은 소요산의 서쪽 기슭 잔디광장에 우뚝 솟은 여기 이 빗돌은 일제의 침략에 분연히 항거하며 온갖 고초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자주독립과 겨레의 자존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우리 고장 출신 광복지사(光復志士)들의 사적을 새긴 것이다. 우리는 의당히 한 우람한 비를 세워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그 비장한 투쟁사를 새겨 천하에 전했어야 했을 것

임에도 이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참으로 죄스러울 뿐이다. 이제 남북분단의 슬픔을 안은지 또다시 45년의 세월이 흐른 작금에 동두천 8만 시민의 결집된 의지로 독립유공자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를 애향시민 783명으로 구성하여 건립장소 선택과 비제작 과정 등 1년여의 추진기간이 경과된 오늘 1907년 정미의병(丁未義兵)의 격전지였던 이곳에 광복 51주년을 맞이하여 이 비를 세우는 것이다.

단기 사천삼백이십구년 팔월 십오일

단 추모비에 기록된 독립유공자는 1995년 이전에 공적이 밝혀진 분들이다. 한편 독립유공자 추모비건립위원회 위원 명단은 〈표 4〉와 같다.

〈표 4〉 독립유공자 추모비 건립위원

직 책	성 명	직 업	직 책	성 명	직 업
고 문	목 요 상	국회의원	운영위원	차 영 환	동두천국악협회장
〃	방 제 환	동두천시장	〃	김 진 국	동두천단위농협조합장
〃	이 영 기	시의회 의장	〃	황 규 홍	시의원
〃	이 홍 구	동두천교육장	〃	배 문 평	동두천고등학교 교감
〃	조 병 효	의정부경찰서장	사무국장	조 규 진	시사편찬위원
위 원 장	목 태 신	성균관유도회동추천지부장	조직간사	윤 학 병	애향동지회 회장
부 위원장	조 인 희	문화원장	섭외간사	이 계 홍	문화원 사무국장
〃	박 찬 혜	동두천고등학교장	재무간사	진 성 복	임마누엘건설대표
운영위원	신 태 룡	소요등산회 회장	추진위원	김승현 외 768명	
〃	이 채 혁	동두천숙박회 회장			

〈비 문〉

우리 민족은 옛부터 수많은 외세의 도전과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은근과 끈기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의연(毅然)하게 오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시켜 왔다. 그것은 오로지 민족자존의 의지와 인본사상(人本思想)에 뿌리를 둔 민족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정신은 일제 36년간의 모진 시련과 탄압 속에서도 분연히 일어나 잃었던 조국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였고 이제는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힘찬 발전을 거듭하여 경제부국(經濟富國)으로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때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일제에 대항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

나 우리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선열들의 피로 아로새긴 순국이념(殉國理念)과 귀중한 독립정신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었음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옛날부터 절의문화(節義文化)가 꽃피워 온 우리들의 향토 동두천에도 살신성인한 순국선열들이 있었으니 1905년 을사조약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자 국권회복을 부르짖으며 의열로 일어섰던 의병장 송천(松川) 김연성(金演性) 의사는 1870년 5월 5일 보산동 출생으로 자는 범일(範一), 관은 성균관 박사이다. 황순일(黃順一)의 권유로 의병에 투신, 1907년부터 의병장으로 양주 · 포천 · 영평 · 가평 · 연천 · 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08년 부대를 확대 · 편성하여 이백 여명을 이끌고 투쟁하다가 일본군에 잡혀 처형당하였다.

추삼만(秋三萬) 의병은 1881년 하봉암에서 출생하여 1907년 황재호(黃在浩) 의병부대에 들어가 활동하던 중 이재학(李在學) 의병부대로 옮겨 양주 · 적성 · 삭녕 일대에서 투쟁 중 친일파 일진회원 김영덕(金永德)과 이승녕(李承寧)을 처단하였다. 그후 일본군에게 잡혀 1910년 1월 5일 처형당하였다.

홍희영(洪喜永) 지사는 1881년 외보산리 출생으로 1907년 황순일(黃順一)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일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1908년 일본군에게 잡혀 5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정두환(鄭斗煥) 지사는 1880년 안흥리 출생으로 1907년 정용대(鄭用大) 의병부대에 들어가 투쟁을 전개하던 중 1909년 의병장 정용대가 잡힌 후 1910년 9월에 홍원유(洪元裕) 부대에 가담, 투쟁 중에 일본군에게 잡혀 5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정충환(鄭忠煥) 지사는 1888년 송내리 출신으로 1908년 5월 20일 황재호(黃在浩) 의병부대의 동료 80여 명과 함께 무장을 하고 투쟁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고, 포천 덕순리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다 일본군에게 잡혀 5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전순만(全順萬) 지사는 1879년 상봉암동 철동 출생으로 1907년 황재호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적성 일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가 1908년 10월 일본군에 잡혀 5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정제환(鄭濟煥) 지사는 1878년 안흥리에서 출생하여 1908년 연기우(延基羽)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삭녕 등지에서 활동 중 1909년 일경에게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전목기(全木基) 지사는 1881년 동두천리 창말에서 출생으로 1907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적성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가 1910년 일본군에게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이긍래(李兢來) 지사는 1883년 광암리 출생으로 1908년 정용대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적성 · 영평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 일본군에게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유재만(柳在萬) 지사는 1882년 안흥리 출생으로 1907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연천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1908년 일본군에게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송창근(宋昌根) 지사는 1888년 상패동에서 출생하여 1908년 윤인순(尹仁淳) 의병부대에 들어가 활동 중 1910년 일본헌병에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목자상(睦子商) 지사는 1870년 지행동 출생으로 황재호 의병부대에 들어가 투쟁을 전개하다 1909년 일경에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우병창(禹炳昌) 지사는 1886년 보산리 출생으로 1909년 홍원유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지방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1911년 일본군에 잡혀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김병기(金秉氣) 지사는 1805년 보산리 출생으로 의병에 투신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1913년 9월 의병장 임병찬 · 이연순 · 전용규 등과 새로운 항일 단체인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1914년 5월 일본경찰에 잡혀 고초를 겪었다.

김병주(金秉周) 선생은 1884년 보산리 출생으로 1907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적성 등지에서 활동 중 일경에 잡혀 모진 고문으로 출옥 후 사망하였다.

이명기(李明基) 선생은 1881년 탑동 출생으로 1907년 연기우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적성 등지에서 활동하다 1910년 일경에게 잡혀 많은 고초를 겪었다.

김병원(金秉愿) 선생은 1882년 보산리 출생으로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적성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병하(李秉夏) 선생은 1873년 탑동 조산 출생으로 1908년 정용대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영평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1910년 일경에게 잡혀 심한 고문을 당해 평생을 불구로 살다 생을 마쳤다.

김병시(金秉媤) 선생은 1891년 보산리 출생으로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적성 등지에서 김본기 · 유재만 등과 같이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많은 고초를 겪었다.

홍병준(洪秉俊) 선생은 자는 덕문(德文), 1864년 걸산리에서 출생하여 1919년 음력 2월 25일 동두천 장날을 택하여 기미독립만세 운동을 주도, 천 여 군중을 지휘하다가 일헌병에게 잡혀 옥중에서도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6개월간의 옥고 끝에 출옥, 심한 고문 여독으로 생을 마쳤다. 이때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당시 배재학당에 다니던 정원이 · 한원택 · 박창배 · 박경필 · 박승철 · 고복정 등 6명의 청년은 모진 태장을 맞고 풀려났다.

목연욱(睦然旭) 지사는 1915년 지행리에서 출생하여 1940년 6월 중국으로 건너가 광복군에 입대, 특수훈련을 받고 상해 등지에서 왜적의 무리들과 투쟁하다가 1944년 8월 일경에 잡혀 북해형무소에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루었다.

황용호(黃龍浩) 지사는 1881년 광암동 좌기골에서 출생하여 1921년 평양에서 중국 임강현

에 본부를 둔 항일 무장운동단체인 백산 무사단에서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잡혀 고초를 겪었다.

이처럼 생사를 초월하여 왜적과 싸운 선열들의 애국의병투쟁사(愛國義兵鬪爭史)와 그 공훈을 회상함에 있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조국광복을 위해 몸바쳐 온 향토선열의 고귀한 애국혼(愛國魂)과 3·1 독립운동정신의 그 유훈을 기리고자 추모비를 건립하여 역사의 장으로 후대에 물려 주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후손들에게 국난극복(國難克服)과 조국광복을 위해 생을 바치신 향토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애국혼을 계승시켜 한국인의 기상이 드높여지게 될 것이다.

역사를 통해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함이 우리들의 국민된 자세로서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 주변국가들의 국익에 따라 영원한 적도 없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냉엄한 현실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대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애국충정의 정신을 함양하는 영원한 산 교육의 장으로 남으리라. 이처럼 선열들의 투철한 애국혼과 그 유훈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동두천시민들의 충정(衷情)어린 뜻을 한데 모아 광복반세기(光復半世紀)를 맞아 여기에 독립유공자 추모비를 건립하는 바이다.

단기 사천삼백이십팔년 팔월 십오일

〈추모비문〉
비문 찬 : 현암 조규진(玄岩 曺圭鎭)
전　액 : 소농 홍정섭(素濃 洪鼎燮)
세　필 : 벽강 최호고(碧江 崔浩暠)

· 위　　치 :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1(다목적광장)
· 부지면적 : 1,010㎡(성토대 450㎡, 광장 605㎡)
· 갓　　석 : 4.3×3.0×3.6척
· 비　　신 : 9.0×3.0×2.0척
· 거북좌대 : 9.0×6.0×3.6척
· 기단(중) : 7.4×6.6척
· 기단(하) : 11.5×9척
· 글 자 수 : 전면(大) 8자, 후(小) 2,700자
· 비　　마 : 5.5×6.0×2.2척(좌대 2.5×6.5×1.7척)
· 건립기(와)비 : 4.0×2.7×0.8척(좌대 5.0×1.8×13척)

· 총투자 사업비 : 94,902천원(기반조성공사 47,870천원, 추모비제작 47,032천원)

2) 산불진화 순직자 추모탑

산불진화 순직자 추모탑

이 탑은 1996년 4월 23일 동두천시 걸산동 산113번지(속칭 밤나무골) 미군 훈련장 임야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다 순직한 산림계장 외 공익근무요원 6명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공적을 후손에게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탑이다.

〈비 문〉

서기 1996년 4월 23일 동두천시 걸산동 밤나무골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도중 예기치 못한 강풍으로 열기에 질식 · 소사한 7명의 영령을 추모하며, 그들의 희생정신을 후세에 영원히 기리고자 동두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여기에 추모탑을 세운다.

〈탑의 구조〉

건립면적 : 150㎡

순 직 비 : 15m

주민공간 : (조경) 135㎡

6층 석탑

3) 6층 석탑

동두천 소재 미 제2사단 사령부 앞마당에 탑이 서 있는데, 연혁(沿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로마성심 기독교회 루이스장목사는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군목(軍牧)으로 재직한 그는 미군에 대한 우호와 감사의 표시로 교회 앞에 서있던 고대의 탑을 미2사단에 증정할 뜻을 사단군목 죠세프 고르스키 중령에게 피력하였다. 탑은 사단장 체스타 다렌 소장(1962. 9~1963. 8)에게 증정되었는데, 후

임 사단장 데이비드 그레이 소장(1963. 8. 2~1964. 8)이 1963년 12월 25일 공식적인 헌납식(獻納式)을 거행하였다. 당시 전달식에는 유문식 양주군수와 한국군 제6군단장 정래혁 중장이 참석하였다.

4) 삼충단 안내비

동두천시 상패동과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경계 50m 지점 대로변에 삼충단(조선 단종 때의 3충신을 제향하는 곳) 안내비가 서 있다. 비 높이는 100cm, 가로 35cm로 1985년 4월 18일 동두천시장인 이헌원(李憲元)이 건립하였는데,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충단 안내비

전면은 삼충단 3자를 한자로 각자되어 있고, 그 화단에는 한글로 '삼충단 입구' 라고 다섯 글자가 새겨 있다.

후면은 忠懿公 白村 金文起 先生
忠貞公 遯菴 閔 伸 先生
忠獻公 楊州 趙克寬 先生

이라고 각자되어 있으며 앞면의 삼충단이란 대자는 서예가 현암의 글씨이다.

5) 이지함선생의 유적

동두천시 탑동 동점마을 입구 하천변에 조선 선조대 포천 현감을 지낸 토정 이지함(李之函)선생이 새겼다고 전해지는 방위표시가 자연석에 각자되어 있다. 바위 크기는 3×2m이며, 상하 3줄이다. 좌로부터 '一二三四' (첫줄), '六七八九' (둘째줄), '黃中元吉' (셋째줄)이 각자되어 있다.

동점마을 방위표시바위

6) 의병장 송천 김연성열사 추모비

의병장 송천 김연성열사 추모비

강릉 김씨(江陵金氏) 판윤공 동두천 종중(宗中)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종중 자체 기금 5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3개월의 공정으로 건립하였다.

〈추모비 건립기〉

유구(悠久)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나라의 국권(國權)을 강압적으로 빼앗은 일제의 침략에 분연히 항거하여 온갖 고초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의 자주독립과 겨레의 자존을 위해 목숨바쳐 싸우신 우리 고장 애국선열(愛國先烈)들의 항일 · 구국 · 애국운동은 나라 안의 어느 곳 못지 않게 줄기차고 강렬하였으니 그 거룩한 민족정기(民族精氣)는 곧 자랑스런 동두천인의 혼이요 후세의 귀감인 것이다.

이에 8만 시민의 높은 뜻과 강릉 김씨 판윤공(判尹公) 동두천 거주 후손들의 결집된 의지로 때늦은 아쉬움이 있으나 유서깊은 마차산 동남기슭 어운담 옆에 조국광복 운동에 헌신한 22위를 표상하는 추모비를 세워 애국선열의 영혼에 보답하고 그 거룩한 뜻을 기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과거 역사의 교훈과 교육의 지표로 삼고자 1994년 우리 종회(宗會)에서 이 비의 건립을 발기하고 김연상 종친회장(宗親會長)의 적극적인 노력과 방제환(方濟煥) 동두천시장의 지대한 협찬으로 주공정인 비 건립은 1995년 9월에 입석(立石)하였고, 진입로 · 조경 · 주차장 등은 1995년 10월에 마무리하였다.

1995년 11월 11일

강릉 김씨 판윤공(判尹公) 동두천 종중(宗中)

회장 김만경(金萬卿)

※ 이 비는 자주독립의 일념인 민족정신을 담고 있으니 동두천인의 애향애국하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온누리에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비 문〉

나라를 걱정함은 충성의 근본이요 민족을 생각함은 효도의 바탕이다. 역사상 우리 민족처럼 시련을 겪은 민족도 드물 것이다. 내 고향 동두천도 타지역 못지 않은 명유선각(名儒先覺)의 지성과 구국동량(救國棟梁)의 지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1905년 을사보호 5조약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자 국권회복을 부르짖으며 의열(義烈)로 일어섰던 의병장 송천(松川) 김연성(金演性)열사, 1870년 5월 5일생, 자는 범일(範一), 호는 송천, 관 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 한말 일제 초에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을 한 강릉인 병기(秉氣)의 자이다. 어려서부터 학재(學才)가 있어 성균관에서 수학하였으며 관직으로 충청도 도사(都事)로 있다가 일제침략에 분노하여 1907년 의병장 황순일의 권유를 받고 봉기(鋒起) 4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양주 · 적성 · 연천 · 포천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 이때 같은 동두천 출신 전목기(全木基), 유재만(柳在萬) 선생 등을 휘하에 두었고, 1908년 부대를 확대 · 편성하여 200여 의병을 이끄는 대규모 의병부대의 장이 되어 양주 · 연천 · 포천 · 평산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일군에 잡혀 죽음을 당하였다. 김병기 선생은 1805년 12월 4일생, 자는 성모, 강릉인 학추(學樞)의 자로 독립운동가로 한말 왜적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의병에 투신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아들 연성(演性)도 의병활동 중 일군에 잡혀 죽음을 당한 바 있는 의병집안의 가장이다.

1910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투쟁을 멈추지 않고 1913년 9월 의병장 임병찬(林炳瓚), 이연순(李演淳), 전용규(田鎔圭) 등이 의병 출신들을 모집 새로운 항일투쟁 조직체인 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여기에 참여하였다. 독립의군부는 일본 내각총리대신 및 조선총독에게 국권반환(國權返還) 요구서를 보내기도 하고 한국인이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외에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4년 5월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 동지들과 함께 일본경찰에 잡혀 고초를 겪었다.

김병은(金秉慇) 선생은 1872년 6월 5일생으로 1950년 10월 12일 졸, 자는 문선(文先), 강릉인 학연(學演)의 자, 농사를 짓다가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연천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김병주(金炳周) 선생은 1884년 6월 8일생으로 1909년 3월 15일 졸, 자는 경륜(敬倫), 강릉인 학연의 차자(次子)로 농사를 짓다가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가담, 양주 · 포천 · 적성군 일대에서 활동하다 일군에게 잡혀 고초를 겪고 풀려나왔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김병시(金秉媤) 선생은 1891년생으로 자는 문생(文生), 강릉인 학연의 삼자로 농사를 짓다가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3형제가 모두 가담하여 양주 · 포천 · 연천 · 적성군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많은 고초를 겪었다.

김병원(金秉愿) 선생은 1882년 10월 2일생으로 1962년 11월 22일 졸, 자는 공필(公弼), 강릉인 학감(學鑑)의 자, 농사를 짓다가 1908년 김연성 의병부대에 들어가 양주 · 포천 · 적성군 일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많은 고초를 겪었다. 그리고 우리 향토출신 의병으로 단양인 우병창(禹炳昌) 선생 · 선인 전순만(全順萬) 선생 · 동래인 정충환(鄭忠煥) 선생 · 추계인 추삼만

(秋三萬) 열사 · 남양인 홍희영(洪喜永) 선생 · 광주인 정제환(鄭濟煥) 선생 · 벽진인 이명기(李明基) 선생 · 전주인 이병하(李秉夏) 선생 등 잃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불원부모처자(不願父母妻子)하며 국내의거에 몸바침은 물론, 이역만리 중국 등지에서 모진 냉한 속에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면서도 왜적의 무리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운 사천인 목연욱(睦然旭), 평해인 황용호(黃龍浩) 선생. 그분들이 어떤 자신의 영화를 위함이던가 아니면 생명의 고귀함을 몰라서였던가. 지나온 세월을 헤아려 끼친 자취를 더듬어 보니 풍진세파(風塵世波)속에 분묘는 황폐된 채 말이 없고 담장은 허물어져 가슴만 뭉클하다. 후손마저 영주몰락(零週沒落)하니 어찌 통탄치 않으랴. 나라에 충성한 선열들의 공훈이 이처럼 출중한데 어찌 부끄럽고 죄스럽지 않으랴. 교육이란 무엇이며 문화란 무엇인가. 또 예절이란 무엇인가. 우리 고향이 낳은 훌륭한 선열을 받들지 못한다면 교육은 의미가 없고 문화는 퇴보할 것이며 예절은 그 기강을 잃을 것임이 너무도 자명하다. 이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해방 50년을 맞는 이때 강릉 김씨 판윤공 동두천 종중(會長 金演祥)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공헌한 향토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 고향의 자랑이요 긍지(矜持)가 될 것이며, 이 비를 통해서 그 분들의 정신과 정기를 체득하고 계승케 하여 후인의 귀감이 되며 그 얼이 후세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기 1995년 8월 27일

비문 :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현암(玄岩) 조규진(曺圭鎭)

비의 상징 : 비 상단(머리)에 무궁화꽃 22송이를 조각하여 지역출신 독립유공자 22인을 상징하였으며, 전면에 조각된 큰 무궁화는 의병장 송천 김연성 열사를 의미한 것이다.

· 부지 면적비 : 400평(강릉 김씨 판윤공파 동두천 종중 소유)
· 비 의 크 기 : 높이 16자, 가로(폭) 3자 반, 세로(옆) 1자 반
· 비부지와 광장 : 20평
· 잔 디 광 장 : 200평
· 주 차 장 : 180평
· 위 치 : 동두천시 안흥동 산 70번지

제3절 보호수

1. 보호수 현황

지행동 소재 도나무

1996년 12월 현재 시내에는 도(道)나무 3, 시(市)나무 5, 동(洞)나무 9, 마을나무 21그루 등 총 38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동두천시가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보호수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 지방의 역사를 증언하는 산물이다.

1) 도나무

탑동 소재 도나무

도나무로 지정된 것은 3그루로 은행나무 2그루와 느티나무 1그루이다. 수령은 은행나무가 900년과 500년이고, 느티나무는 700년이다. 나무 높이는 30m와 15m인 은행나무와 20m인 느티나무이다. 나무의 둘레는 9m와 8m인 은행나무, 9m인 느티나무로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도나무 현황

전국 일련번호	지역 일련번호	수 종	본 수	수 령 (年)	수 고 (m)	흉 고 (m)	소 재 지	소 유 자
36	10	은행나무	1	900	30	9.0	지행동 214	이 강 진
37	11	은행나무	1	500	15	8.0	생연동 213	홍 종 혁
227	47	느티나무	1	700	20	9.0	탑동마을	장 세 창

2) 시나무

시나무로 지정된 보호수는 2그루로 모두 느티나무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처럼, 수령은 450년 350년이고 높이는 17m와 15m이다. 소재지는 하봉암동과로 생연동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아늑함을 준다. 즉 나무의 수령을 통해 이곳의 역사적인 유래를 단편적이나마 엿볼 수 있다.

〈표 6〉 시나무 현황

전국 일련번호	지역 일련번호	수 종	본 수	수 령 (年)	수 고 (m)	흉 고 (m)	소 재 지	소 유 자
70	15	느티나무	3	450	17	4.4	하봉암동 221	
71	16	〃	1	350	15	3.0	생연동 115	홍 종 현

3) 동나무

동나무는 모두 7그루인데, 수종은 느티나무 3그루와 은행나무 4그루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수령은 200~300년이고, 나무 높이는 15~35m로 다양하다. 소재지는 생연동이 5곳, 지행동과 안흥동이 각각 1곳이다.

〈표 7〉 동나무 현황

전국 일련번호	지역 일련번호	수 종	본 수	수 령 (年)	수 고 (m)	흉 고 (m)	소 재 지	소 유 자
91	1	느티나무	3	200	35	4.0	지행동 248	안 병 관
92	2	〃	1	290	15	4.75	생연동 244	
93	3	〃	1	300	25	6.0	안흥동 133	정 진 호
94	4	은행나무	1	200	30	7.0	생연동 114	홍 학 섭
95	5	〃	1	200	35	7.5	생연동 195	이 근 식
96	6	〃	1	200	30	7.0	생연동 114	홍 정 분
97	7	〃	1	290	20	4.0	생연동 104	목 승 균

4) 마을나무

마을나무로 지정된 보호수는 〈표 8〉과 같다. 수종은 소나무 · 느티나무 · 은행나무 · 고로쇠나무 · 소나무 등 매우 다양하다. 수령은 120년에서 500년까지로 보호수를 통해 이 지역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나무 높이도 10~30m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마을나무의 소재지도 동두천시 전역을 걸쳐 있다. 동두천시의 역사와 유래를 나무들이 말없이 웅변하고 있는 듯하다.

마을나무는 이곳에 주민들이 이전부터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온 사실을 알고 있다. 곧 동두천시 전역에 마을이 조성된 연유를 나무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인간의 생활 변화를 말없이 지켜본 증언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표 8〉 마을나무 현황

수종	그루수	수령	수고	흉고	소재지	소유자
소나무	1	400	10	2.10	송내동 산35	어형우
느티나무	3	500	20	5.10	지행동 산181	박양희
은행나무	1	350	27	4.72	안흥동 307	이병진
느티나무	1	300	15	8.02	웃안흥 410	
〃	3	300	30	2.80	생연동 산 고리(못골)	
고로쇠	1	500	15	2.95	탑동 조산마을	
〃	1	100	30		동안동(마차산정상밑)	
느티나무	1	300	30	4.06	탑동 조산마을	
〃	2	150	27	3.70	하봉암동 5/4(동막골 입구)	
은행나무	2	150	30	3.15	상패동 764(골말)	정충식
느티나무	3	150	30	2.60	지행동 284(교육청 앞)	홍영표
은행나무	2	150	30	2.50	〃	〃
느티나무	1	120	25	2.80	안흥동 144	강현석
은행나무	1	150	27	2.80	〃 133	정진호

2. 유서 깊은 나무

1) 송내동의 적송(赤松)

송내동 안골마을 뒷산 35번지에 서 있는 이 소나무는 높이 10m, 밑둘레 210㎝, 가지의 길이는 17m로 방석을 틀고 있는 듯하다. 부채살을 연상케 하는 거목으로 전체적인 수세는 부드러운 선을 그으며 남향으로 휘였고 가지는 밑으로 처지는 경향이다. 이 소나무는 송내동에 수대를 살아온 함종어씨의 낙향조 묘옆에 서 있는데, 구전에는 묘를 쓸 때 이미 100년이나 된 상태였다고 하니 수령은 450여 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내동의 적송

2) 행단골의 느티나무

지행동 행단마을 181번지에 있는 이 나무는 높이 20m, 밑둘레 51m인 노거수(老巨樹)로 수령은 약 500년이다. 수세(樹勢)는 몸통이 비어있고 가지는 동남간으로 뻗어있다. 이곳은 감악산이 한눈에 보이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아늑한 마을 분위기를 보여준다.

지행동 느티나무

3) 방축골의 노거수

동두천시 생연동 213번지에 소재한다. 은행나무는 높이 15m, 밑등 둘레 8m, 수령은 500년이다. 이 노거수는 홍정로(洪貞老)의 차자 수사공(水使公) 준(濬)이 못골의 종가로부터 이곳(방축공리 3)으로 분가하여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전형적인 집을 짓고, 집 앞에 은행나무를 심은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준은 성종 6년(1475)에 태어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역임하고, 중종 20년(1525)에 죽은 인물이니 지금으로부터 520년 전의 일이다. 준이 20대 은행나무를 심었다면 500년이 되므로, 노거수의 수령이 500년이란 것과 일치하는 등

전설이 아닌 사실로 전해진다. 현재도 준의 15대 직손이 이 집에 살고 있어 남양 홍씨의 뿌리를 더욱 실감나게 해준다.

구술(口術) : 홍종혁(현 69세)

4) 행단골의 은행나무

지행동 214번지에 서 있는 이 나무는 도목(道木)으로 지정되었는데 전국 일련번호 36이고, 지역 일련번호 10이다. 높이 30m, 둘레 9.0m로 수령이 600년으로 되어 있다. 식민지시기에 950년으로 표기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1천년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사전기(故事傳記)〉

조선 세종~성종 대에 이르기까지의 무장 어유소가 이 나무 밑에다 단을 쌓고 학문과 무예를 연마하였다고 하는 데서 행단(杏壇)이라는 지명이 되었다. 그후부터 이 나무를 신성시하여 마을의 무사고와 풍년을 비는 수신제(樹神祭)가 수백년 동안 거행되었다. 수신제와 같이 실시된 장정들의 힘겨루기 · 농악 · 씨름 등 다채로웠던 전통놀이들은 45년전 일제의 말살정책에 의해 없어졌다. 그러나 나무 아래엔 300년 전부터 힘겨루기에 사용되었던 200근 자연석이 그대로 놓여져 있다. 은행나무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말없이 증명한다. 하지만 산업화에 따른 민속놀이의 소멸은 정신적인 공허감을 수반한다는 사실이 아쉽다.

5) 탑동의 느티나무

광암동 8통 장림마을에 자리한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 22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높이 20m와 밑둘레 9.0m인 노거수로 수령은 700년이다. 수세(樹勢)는 몸통이 굵지만 속이 비어 있는 등 정확한 수령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영양이 양호하여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고 밑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다.

3년마다 마을의 부와 번영을 위하여 주민공동으로 치성을 드리는 도당굿을 한다.

6) 하봉암동의 느티나무

하봉암동 221번지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 제7호로 지정된 보호수로 높이 30m, 밑둘레 4.4m, 수령 450년 된 거목이다. 전체적인 수세(樹勢)는 웅장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

지가 무성하고 사방으로 고루 뻗쳐있다.

이곳 주민들은 3년마다 동리의 번영과 주민들의 안녕을 축원하는 당굿을 하고 있다.

7) 생연동의 느티나무

생연동에서 못골로 넘어가는 고개에 위치한 이 느티나무는 높이가 3.0m이고, 둘레가 280㎝인 노거수로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이 나무의 특징은 한 뿌리에서 다섯 그루가 자라 그 위용이 웅장하며, 가지가 무성하여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처로 이용된다.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림으로 이름이 나 있다.

옛날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이곳에다 치성을 드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성시하여 무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당들의 굿 장소로도 이용된다.

8) 담안의 은행나무

안흥동 담안마을 307번지에 자리한 이 은행나무는 높이가 약 27m이며, 밑둘레가 472㎝인 노거수로 수령은 약 350년으로 추정된다. 구전에 의하면 송시열의 제자 이유(李瑜, 全義人)가 이곳에 살면서 심었다고 전한다.

9) 내안흥(內安興)마을의 괴목

안흥동 윗안흥 410번지에 있는 이 고목은 높이가 약 15m이며, 밑둘레가 8.05m로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10) 조산의 둥우리

광암동 조산(造山) 789번지에는 자연상태로 보전되고 있는 새둥지 모양의 원(苑)이 있다. 이 원에는 400~500년씩이나 된 느티나무 · 고로쇠나무 · 단풍나무가 수림(樹林)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에는 편석(片石)이 널려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된다.

구전에 의하면 이 둥우리에는 가축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닭이 이곳에 올라가서 울면 동네에 흉사가 생기고 그 닭도 원인 모르게 죽는다고 한다. 그러한 전설 때문인지 이곳 주민들은 둥

우리를 신성한 곳으로 여겨 마을 공동으로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고로쇠목은 높이 약 15m, 밑둘레 2.95m인 노거수로 수령은 약 500년으로 추정된다. 느티나무는 높이 약 30m, 밑둘레 4.06m인 노거수로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이 나무로 인하여 신성한 분위기는 긴장감을 더해준다.

〈조규진〉

제 3 장 전통 건축물과 고문서

제 1 절 전통 건축물

1.자재암

소요산에 위치해 있는 자재암(自在庵)은 봉선사(奉先寺)의 말사(末寺)로,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 14년(645)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한 절이다.

이후 고려 광종 25년(974)에 각규대사(覺圭大師)가 중창하여 번창하다가 고려 의종 7년(1153)에 화재가 일어나 모두 타버렸다. 다음해 각령선사(覺玲禪師)가 대웅전과 요사 일부를 다시 세우고, 한동안 진전이 없이 내려오다 고종 11년(1872)에 원공선사와 제암화상이 44칸의 규모로 증축하고 이름을 영원사(靈源寺)라 바꾸었다.

이때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수락산 흥국사에 수도하던 제암화상이 보개천불전(寶蓋天佛殿)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요산 아래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신기한 꿈을 꾸고는 다음날 아침에 꿈에 나타난 절을 주변에서 수소문하여 찾으니 그곳이 자재암이었다.

자재암에서 수도하던 원공선사도 꿈에 귀한 손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그와 같이 절을 다시 세우니 3년이 지나 요사 20칸, 영산전 6칸, 만월보전 6칸, 독성각 1칸, 산신각 1칸, 별원 5칸, 소요사 5칸 등 총 44칸을 복구하고, 지금의 원효대를 지나 구(舊) 절터에 원효암을 건립하고 신령스런 꿈으로 복원하게 되었다고 하여 자재암을 영원사(靈源寺)로 고쳤다 한다.

1907년 의병활동의 근거지였던 탓으로 완전히 불타버렸다. 2년 뒤인 1909년에 제암화상과 그의 제자 성파(性波)스님이 다시 복구하고 원래의 이름인 자재암으로 복원(復元)하였다. 한국전쟁으로 또 한 번 완전히 불탄 것을 1961년에 진정(眞靜)스님이 요사를, 1974년에 추선대선사(秋禪大禪師)가 포교당과 원효대를 다시 세웠으며, 1977년에 법조(法照)스님이 삼성각을 창건하고 백운암과 동편 요사를 보수하였다.

경내 주변에는 1980년에 조성한 석굴과 추담대선사 사리탑(秋禪大禪師 舍利塔), 속리교와 세심교가 있다. 또 창건시 원효가 지맥을 찾아 물을 솟아나게 했다는 원효정이 있다. 그리고 원

효대사가 절을 창건하면서 수행하는 동안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을 데리고 와서 머물렀다는 요석공주 궁지 · 사자암지 · 현암지 · 원효사지 · 조선 태조 행궁지가 있다고 하나 그 위치는 알 수는 없다. 단지 주변의 의상대 · 나한대 · 금송굴 · 선녀탕 · 선녀폭포 · 청량폭포 등이 있어 경관을 더해 주고 있다. 옛날 기록으로는 《소요산기》, 《소요산영원사중건기》, 《자재암재차중건기》 등이 있다.

자재암이 있는 소요산은 198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았다.

2. 어유소장군 사당

어유소장군 사당(魚有沼將軍祠堂)은 조선 세조와 성종 때의 무인이었던 어유소장군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당(堂)을 일컫는 말이다.

왕실에서 세운 것을 종묘(宗廟)라 하고 일반인의 것을 가묘(家廟)라 한다. 우리 나라에 사당이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부터이며 고려 말에 발전되기 시작하여 조선중기 이후에는 일반화되었다. 특히 중종 때에 사림들이 가묘를 장려한 이후로 사대부들은 누구나 사당을 짓게 되었다.

어유소장군 사당은 원래 광암동(좌기골) 묘소 옆에 위치해 있었으나 식민지시대 일본인들의 수탈이 심해 현재의 어씨 집성촌인 동점마을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본래의 건물은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지고 최근 들어 현재와 같은 목조 건물을 짓고 주변에 담을 둘렀다.

사당 안에는 제상(祭床)과 성종 20년(1489)에 만들어져 전해 오는 오동나무 재료를 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위패의 크기는 가로 10㎝, 세로 13㎝이다.

3. 삼충단

삼충단(三忠壇)은 조선 세조의 왕위찬탈에 항거하고 단종의 복위(復位)운동에 가담했던 민신(閔神), 김문기(金文起), 조극관(趙克寬) 등 세 충신의 호패비(號牌碑)를 모신 곳이다. 정조 15년(1791)에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을 위해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찬할 때 이들 세 사람은 삼중신(三重臣)으로 선정되었다.

민신(閔伸)선생은 문종 때 병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단종 원년(1453) 계유정난(癸酉靖亂) 때에 현능(顯陵) 비역(碑役)을 감독하던 중 김종서(金宗瑞)의 일파라 하여 비역소(碑役

所)에서 참살당하였는데 정조 때 복관(復官)되었다. 호(號)는 둔암(遯菴)이고, 시호(諡號)는 충정(忠貞)이며,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김문기(金文起)선생은 세종 8년(142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검열정언(檢閱正言)과 함경도 관찰사(觀察使)를 거쳐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세조 2년(1456) 단종복위(端宗復位)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처형되었는데 영조 때 복관되었다. 자는 여공(汝恭)이고, 호는 백촌(白村)이며, 시호(諡號)는 충의(忠毅)이고, 본관은 금령(金寧)이다.

조극관(趙克寬)선생은 태종 14년(1414)에 문과에 급제하여 우승지(右丞旨)와 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대사헌(大司憲), 우참찬(右參贊)을 지냈다. 단종 원년(1453)에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으나 계유정난(癸酉靖亂) 때 김종서의 일파로 처형되었다.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삼충단의 단의 규모는 가로 9.6m, 세로 7.2m로 사방으로 벽이 둘러쳐 있으며 정면에 출입문이 있다. 내부는 둔암 민선생위(遯菴 閔先生位), 백촌 김선생위(白村 金先生位), 양주 조선생위(楊州 趙先生位)라고 쓴 대리석의 호패비 3개가 나란히 서 있다. 호패비의 크기는 높이 67cm, 폭 28cm, 두께 10cm이다.

1932년 9월 백촌의 후손 김항권(金恒權)이 양주 유림의 협조로 현재의 규모로 세웠으며, 해마다 봄 · 가을에 종정일(終丁日)을 택해 제사를 지낸다.

4. 전통가옥

우리전통 가옥의 공간 구성에는 독특함이 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자연환경에 의한 것과 우리의 오랜 생활풍습의 독특함에서 비롯된 것들이 주택의 공간 형성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조선 이후에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신분제도, 조상숭배 사상 등과 고려 때부터 널리 적용된 풍수사상 등이 주택공간의 터잡기와 집의 방향, 각 마당과 방의 자리잡기와 크기 결정, 각 내 · 외부공간 상호간의 관계 설정, 출입 동선 · 조원 기법과 내용의 결정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두천시 소재의 전통가옥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의 전통가옥은 송내동 한옥(일명 목태신 가옥)과 지행동 한옥(일명 이강진 가옥)이 있다. 이 가옥의 특징은 조선후기 일반사대부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집터잡기는 풍수원리의 적용이 절대적이다. 다시 말하면 일조와 관계되는 향배에 의한 비중

보다 풍수적 해석에 의한 지맥과 시선의 관계가 보다 더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음양 오행등 중국적 사고가 지배했던 조선에서도 시가지의 구성과 가로망의 형성, 집과 집을 잇는 소로의 구성은 '한국적' 자연스러움을 존중하였으니 직선과 직교의 고식적 적용(중국 북경의 자금성이나 시가지 등) 대신에 적당히 굽은 길, 십자 교차대신 삼거리 구성이 적용되어 한국적 감각을 살렸다. 이런 구성은 주택에도 적용되어(문간) 어떤 경우에도 영역의 중심이 시선에 바로 노출되는 법이 없다.

건물의 배치에 따른 공간 구성 또한 풍수 원리에 충실했던 것은 같으나, 유교적 위계가 또하나의 대원칙으로 적용되어 가장 중요한 안채와 사랑채는 안쪽으로 자리 잡았다. 또 가장 중시되었던 사당은 가장 안쪽에 자리함이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건축의 위계는 수직으로 적용되었으니, 대문칸 · 행랑채 · 기타 부속 시설들은 건물 자체의 격도 안채나 사랑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추어 칸살이가 좁고 지붕이 낮았으며, 아울러 건물의 기단도 낮추어 수직적 위계가 확실하게 하였다.

남녀의 구분을 엄격했던 유교는 바깥주인과 안주인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였으니 안채와 사랑채의 구분에서 잘 나타나며, 적어도 집안에서만은 바깥주인과 안주인의 위상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안주인이 총괄하는 것이 전통적인 유교적 법도로 지켜졌으니 우리의 전통주택의 곳곳에 그윽한 멋으로 그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사계절이 확실한 중부의 날씨는 난방방법으로 온돌을 발달시켰고, 여름의 더위는 광식구조의 마루와 깊은 추녀등의 더운 지방식의 구조를 발달시켰다. 아울러 들창구조를 적용하여 더울 때엔 벽의 대부분이 개방될 수 있게 하였으니, 이렇게 기후의 양극에 대한 대비를 갖춘 것 또한 뛰어난 면모이다.

마당이 발달된 주택의 조원에도 묵시적인 법도가 있었다. 바깥마당이나 행랑마당은 가사에 필요한 작업의 필요 등으로 식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접객의 빈도가 비교적 큰 사랑마당에는 선비의 격에 알맞는 단아한 수종을 골라 식재하였다. 특히 꽃이 화려하거나 향기가 많은 꽃나무는 기피하여야 했으며, 인공이 심하게 적용되는 분재나 괴기한 수석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장식적인 조원은 별당 주변이나 후원에나 허용될 뿐이었다. 살림살이의 중심이 되는 안마당에는 식재를 할 수 없으나 안사랑이 비교적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한 두 그루의 검소한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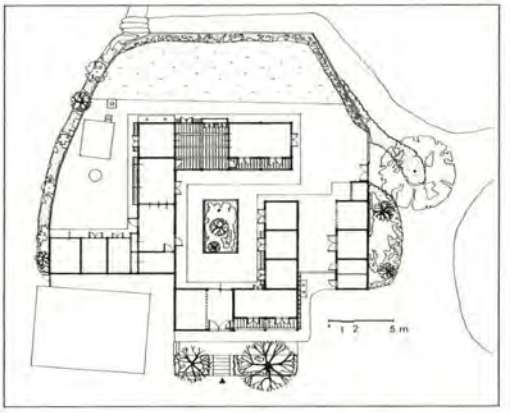
전체적인 건물의 배치는 한쪽이 열린 'ㅁ' 자형 혹은 'ㄷ' 자형의 배치가 중첩되어 비교적 폐쇄된 외부공간(마당)을 이루었고, 통로나 문간은 조금씩 엇갈리게 두어 시선이 빠지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바깥과 출입이 가능한 통로는 대문외에 측문 · 후문 · 협문 등을 적절

히 두어 편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문이 소용되는 것도 신분과 남녀의 구분을 강조한 동선 구분의 필요가 이유일 것이며, 때로는 낮은 화장담을 설치하여 공간 구획의 목적을 이루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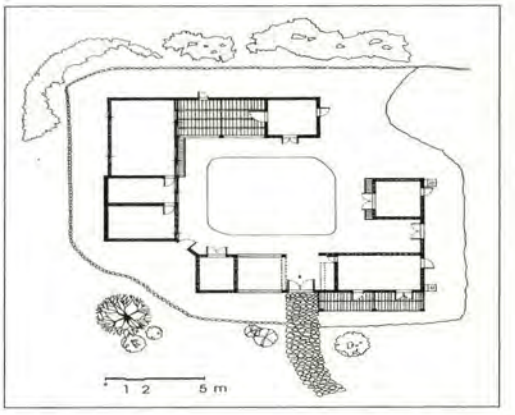
이는 두 가옥의 평면도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엿볼 수 있다. 평면도는 〈도면 1〉과 〈도면 2〉이다.

송내동 한옥 (목태신 가옥)

지행동 한옥(이강진 가옥)



목태신 가옥 〈도면 1〉



이강진 가옥 〈도면 2〉

〈홍 대 형〉

제2절 고문서

1. 고문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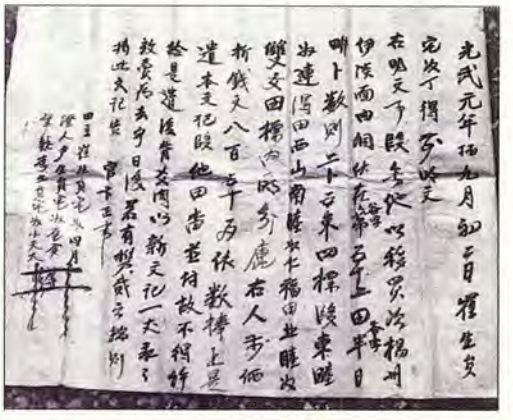
옛날에는 공문이나 함찰(函札)을 전부 서(書)라고 불렀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고문서는 상서(尙書)의 제편(諸編)을 들고 있다. 서란 원래 기록을 한다는 뜻이니 옛날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어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면 고문서야말로 바로 역사기록의 첫째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여 놓은 문서들이 편 · 장을 이루어 책이 되고 또 종류와 계통별로 구분이 되어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문과 서식을 이루게 되어 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고문서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한 사회 발전 연구에 다시 없는 실증적 자료가 된다.

대개 고문서는 문서의 성격상 관과 관, 관과 민, 민과 민 사이의 문서로 공문서와 사문서로 크게 구분되며, 또한 왕명을 중심으로 한 문서로는 조서(詔書) · 교서(敎書) · 고명(顧命) · 비답(批答) · 교지(敎旨) · 홍패(紅牌) · 백패(白牌) · 녹권(錄卷) · 유서(諭書) · 내사(內賜) 등 다양하다. 관민이 왕에게 올리는 문서로는 소계(疏啓) · 목(目) · 단자(單子) · 정사(呈辭) 등이 있고, 일반 공문으로는 문(文) · 장(將) · 점(帖) · 안(案) 등의 명목으로 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민이 관에 올리는 문서로는 소지(所志) · 백활(白活) · 단자(單子) 등이 있으며, 민간 사이에서는 서(書) · 권(卷) · 고목(古目) · 기(記) 등 자유롭게 약속한 문서들이 있는데, 수집된 고문서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2. 지문기(地文記)

토지문기는 토지나 가옥 등을 매매함을 증명하는 문건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토지 · 가옥 · 가축 · 과목 · 시장(柴場) · 곡초(穀草) 등으로 분류된다.

서기 1897년대의 전답(田畓) 매매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문기

發給 : 崔生員宅奴 向月
受給 : 尹生員宅奴 乭金
地名 : 楊州 伊淡 內洞
年紀 : 光武元年(1897)九月

(內容) 光武元年(1897)丁酉九月初二日
崔生員宅奴丁得前明文
右明文事段無他以移買次楊州伊淡面內洞伏在谷第五十二田半日
畓卜數則二卜五束四標段東陸奴建得田西山南睦奴仁福田北睦奴
雙女田標內○明分籠右人前他折錢文八百五十兩依數捧上是遣本
文机段他田畓並付故不得許給是遣後背文周以新文記一丈永永放
賣爲去守日後若有擧貳之端則持此文記告 官下正事
田主 : 崔生員宅奴 向月 (署名)
證人 : 尹生員宅奴 乭金 (署名)
筆執 : 李生員宅奴小天大 (署名)

3. 호(戶)

호는 호구단자를 말하는 것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2년마다 신고하는 단자였는데, 인구의 수를 파악하던 문건이다. 그리고 양자를 할 때에 예조에서 허가를 하여 주는 것을 예사라 한다.

4. 호적(戶籍)

發給 : 楊州牧使
受給 : 崔晉源幼學
地名 : 楊州 伊淡面 松羅里
年紀 : 同治六年(1867)正月 日

호적

(內容)

同治六年 正月 楊州牧使
考丁卯成籍戶口帳內伊湌面松羅內第 統第 戶住幼學崔晉源年
乙亥生五十六本隋城父通德郎 漢鎭祖通訓大夫 光謹曾祖通訓
大夫允迪外祖學生申宗赫本平山妻黃氏齡丁亥生籍長水父學生
應鎭祖學生堌 曾祖學生澄泳外祖學生朴千興本密陽

率收同金婢同月甲子生漢城府相準印

行牧使

準官安
嗚色行

5. 성적호구장(成績戶口帳)

發給 : 漢城府
受給 : 崔載洙
地名 : 慶幸坊漢原君東邊契
年紀 : 嘉慶三年(1798)
嘉慶三年 月 日 漢城府

성적호구장

(內容)

考戊午成籍戶口帳內中部慶幸坊漢原君東邊契第五統第一戶啓功
郎崔載洙家挾戶住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直崔光國己巳生本隋城
父禦侮將軍行龍驤衛副護軍 允迪 祖武科及第 景援
曾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時聰 外祖禦
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金世纘本漢陽妻金氏齡庚午生籍慶州父禦
侮將軍行龍驤副司果 履章 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泰逸
曾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正是樑外祖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直
李允芳本完山率弟禦侮將軍行龍驤衛副護軍光謹壬申生次弟禦侮
將軍行龍驤衛副司果光澤乙亥生妻朴氏齡戊寅生籍咸陽子啓功郎

德鎭己丑生婦金氏齡乙未生籍慶州

率奴婢扶婢尙丹年五十一父不知母私婢莫今一所生奴莫福年

十四父良人金春世等

乙卯戶口准給者

座上　　郎廳　　監董官

6. 소지(所志)

소지는 민간에서 관에 올리는 백활단자(白活單子)이다. 일반적으로 진정이나 청원으로 일반 생활에 나타나는 제반사(諸般事)에 대하여 관에 고하는 일종의 청원인데 주로 산송 · 벌목 · 재산 · 세금 · 노비 등에 관련된 문기가 대부분이고, 공훈 · 효행 · 열녀 포상의 건의 등이 있다.

○백활 1

이담면 지동리 소임(지금의 반장) 백성관 백활(알려 드림)지원 극통한 사정을 우와 여히 진정하나이다. 군보(군역면제자가 내는 세금)는 삼정의 큰 관계된 바이다. 지난 정사년부터 양중에 이름없는 한정이 서로 교대하며 백골도 원통함이 없게 하고 동리에 첩증하는 폐단이 없으리라 하였으며, 또 년전에 동포(세금)를 각양으로 설치하였으니 군보는 한 번 정하면 더 할 수 없는 것인데 불의에 재작년부터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전령이 편지로 허명 백악이라 하여 다만 금지로 군전을 독촉하고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금번은 허명 군전 닷냥 닷돈을 전령(군청의 관원)이 와서 이신(천민이 자칭하는 말)에게 독촉하니 세 사람의 몫이라 일신 양역에 지원극통한 문제입니다. 하물며 조령이 내리기는 사당말 묘골 한정들은 반드시 감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동은 허명 군보가 없게 하고 나로 하여금 편안히 살게 하여 주시기를 천만번 엎드려 비옵니다. 사도주 처분.

백활소지 1

갑자 11월 일 소지(호소문)

伊淡面紙洞里所仕白聖官　　白活

(內容) 右謹陳至寃極痛情由段單保者三政之大閑也去丁巳良中虛名閉丁
亙相充代白骨無寃黃口未填而里無田宜懲之弊是白遣且於年前或
設洞布各樣單保有定無加矣不意再昨年以來未見印押傳令以片紙
稱以虛名白岳只金紙洞單錢暗自督捧於身役之外而年年加懲至於
今番則官差導主人虛名　單錢五兩五錢以傳令來督於矣身等
即但三漢也一身兩役至寃分除良且況朝令之下祠院墓村閑丁想必
除減而至於紙洞則虛名單保一句加出哀此小民將至於流雜之境是
乎則緣由玆敢仰訴於明庭之下爲白去乎伏乞　參商
敎是後特爲頃給虛名使矣身亦如前察堵之地千萬望良爲只爲行下
　　白敎是事
使道主處分
甲子十一月　日　　所志

○백활 2

이담면 지동리 목남포댁 노 석화 백활우와 같이 만 만절박 사정을 진정합니다. 택노의 상전께서 만 7순이신데 4월부터 이달에 이르기까지 노환이 깊어 항상 누워 계시고 또 가세 빈한하여 조석 난계하니 치료해 드릴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약한 소 한 필이 있어 땔나무를 싣고 서울을 다니더니 얼음길에 넘어져 한 다리가 상하여 움직이지 못하므로 소 의원에게 보이니 각절되었다 하여 부득이 도살하여 두 족으로 노상전을 조리해 드릴까하여 이 연유를 우러러 사뢰오니 엎드려 비옵니다. 이것을 참작하시어 입지를 내려 주시면 천만 행심이겠습니다.

백활소지 2

사또주 처분을 바라나이다.

정묘 12월 일 소지

伊潭面紙洞里睦蓝浦宅奴石和　白活

(內容) 右謹陳萬萬切迫情由所矣宅老上典

年滿七旬自四月至于今月老病侵尋

常委床茲且勢本赤貧朝夕難繼萬無調將之道是如只有弱牛一雙馱

柴上京是如可爲氷路沂蹶前一脚致傷運動不得故使理牛人看之則脚折

云故不得山將屠之取其頭足以供老上典一時上調補爲計故茲敢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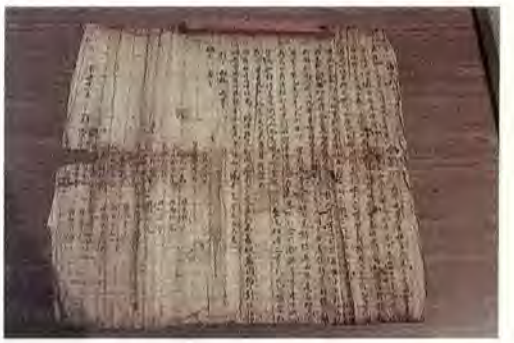
由仰訴爲白去乎伏乞參商教是後特爲立旨出給一以爲去皮立本之

地千萬幸甚行下向教是事

使道主處分

丁卯十二月　日　　所志

○백활 3



백활소지 3

海等村居　化民睦祖榮等　白活

右謹陳千萬痛迫情由段民等屢代墳山於　治下古州內面梧里洞是白乎所

禁養守護者殆至數百餘年幸得保全其祖先之塋域矣不意今者墓下居安來

重爲名人暗地偷葬其從弟喪於逼近之是如乎直是草白虎坐立俱見之處也

噫彼來重葬其弟一朽骨何處不可而渠何敢肆然偷葬於士夫家有官爵顯名

之墓所也民本於日前聞此驚報卽往楸下招致來重詰其顚委則來重言內此

葬於我爲從弟間而殆同荒野之餓殍初非擇地而葬之也亦非完葬之計也以

其不遠於所居不卜日掩土而已今聞僉宅之言則此實至重難杞處也將於今

夕募人明日移葬計料是如僕〃謝罪累〃哀乞是白去乙民本亦以　官村無

7. 계문(啓文)

계문은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외교적인 공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하례문(賀禮文)과 조약문(條約文) 등의 외교 문서를 말한다.

事之意姑下呈訴係其必然是白加尼至其定日齊往探知是乎則所謂未
金晏然在家畧不動念於移掘等事千古世間寧有如許悖悪叵測之人也萬
古天下豈有如許至迫切憤之事哉民之諸宗散在京鄉而泣血之地裹足而
來齊聲仰顲於
明府按法之下伏乞　洞燭敎是後同安來重發差捉來着枷嚴囚卽刻掘移俾
此無勢殘罷之民得全其祖先墓墳山之地千萬望良白只爲

行下　向教　是事

城主　處分

	睦徽中		
幼學	睦顯中	幼學	睦羲鉉
	睦允中	進士	睦光鉉
進士	睦普中		睦仁溧
承議	睦萬中		睦仁圭
	睦祖松		睦誠中
	睦祖栢		睦在中
	睦祖琥		睦亨中
	睦祖鼎		睦養中
幼學	睦祖一		睦應中
進士	睦祖運		睦甑中
幼學	睦祖明		睦仁紀
前〇	睦祖永		
及第幼學	睦祖崇		

癸丑十一月　日

8. 교지(教旨)

일반적으로 교지 혹은 교서는 국왕의 임명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명 고신이라 하고 품급에 따라 관원을 임명한 증서이다. 교지는 다시 그 품급에 따라 교지 · 왕지 · 교첩 · 익호 등 다양하다.

○교지 1

교지 1

教 旨

發給 : 刑 曹

受給 : 睦行善贈資憲大夫吏曹判書

年紀 : 康熙三十一年四月二十五日

(內容) 贈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副摠管睦行善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芸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管者

康熙三十一年四月二十五日

資憲大夫刑曹判書 睦昌明考依法典筵 贈

○교지 2

교지 2

教 旨

淑夫人柳氏

贈貞夫人者

順治十年十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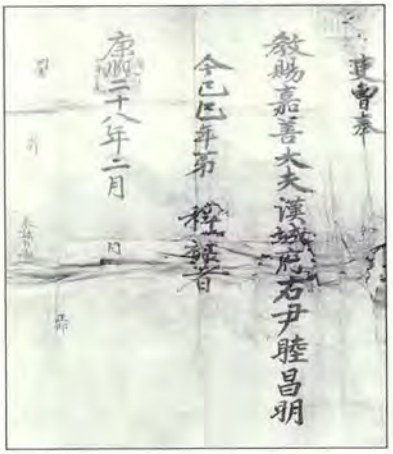
(通政大夫守黃海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睦行善妣依大典追 贈)

○교지 3

吏曹奉
敎賜嘉善大夫漢城府右尹睦昌明
今已巳年 第 科錄者

康熙二十八年 二月 日

判書 參判 參議臣姜(決)



교지 3

○교지 4

敎旨
崔光謹爲奉訓大夫行觀象監判官者
乾隆四十四年十二月 日

교지 4

○교지 5

禮曹奉
敎朝散大夫前行觀象監直長崔光謹
陰陽科 第一人出身者
乾隆四十二年五月十一日

교지 5

9. 시권(試卷)

국가의 과거시험 때 글을 지어 올리는 답안지로 대과(大科) · 소과(小科) · 제술과(製述科)의 시지이다. 이 시권에는 품급의 표시가 되어 있다. 시권 중에서 관인이 없는 것을 백문(白文)이라 하기도 한다. 지행동의 목종대씨가 소장하고 있는 그의 9대조 목인구(睦仁求)의 시권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右道楊州　司馬李主閒坐第　三四侍詩

桂樹南山烁色坐　翛然綠髮烏皮几
青牛關古客著書　黃石橋深人拾履
梧床晴晝刋摳衣　卜肆之中賢者是
朝回我車訪市隱　頤見高人爲弟子
瑤籤誰叩楚靈氛　寶籀思尋周太史
義圖孔翼討論餘　卿相朝端等閒視
輕塵初浥渭南村　若有人爲門踏市
茶爐烟細○葛布　蓍櫝香凝点梅葉
春城兩過柳轉陰　道氣浮浮簾几倚
蕭然真像逈塵表　挾第床頭幾人跪
三嘆樂府倡瑟人　半留雩壇浴沂士
玄玄卦象問荅地　中坐先生聞亦喜
巢蓮老龜甲髯蒼　飲露靈嚕頷字紫
泛容緹幔太古意　金馬門前不遠通
紅塵一點杏不到　花覆晴窓渴至理
真人庇在道義肥　博士何官名利恥
圖書一室這箇客　自在山林城市裏
神符鄙斤斲堊鼻　妙合庖刀湊經旨
前筵不覺欃纓坐　浩浩遲々移午晷

시권

10. 노비문서

일반적으로 노비문서는 명문(明文)이라 하여 하나의 증서이다. 노비의 매매를 입증한 문권으로 이는 사문서이며 적문권(嫡文卷)이라고도 한다. 다른 토지문기나 가옥매매문기와 마찬가지로 민간에 가장 많이 유행된 문기(文記)의 하나이다.

노비문서 1

노비문서 2

發給：睦租榮

乾隆五十七年　正月　日　楊州牧

考生子生籍戶口帳內北面伊淡黃梅陰里第一統第三戶

幼學睦租榮年六十九甲辰生本泗川父通德郎恒敬祖縉工監々役官朝散大夫天龜曾祖成洵生員林華外祖學生李彭年本全州妻李氏玲四十九甲子生籍全州父學生震壽祖通德郎世逵曾祖通訓大夫行昌寧縣監大丘鎭管僉哥馬節制都尉顯章外祖學生郭鎭庠本玄風率侄幼學養中年五十三庚申生侄婦申氏玲四十四己巳生籍高寧子幼學有中年二十四己丑生

率婢小化年甲戌生父私奴孚男母班婢壺丁婢七禮年戊子生父私奴士仁母班婢貴禮婢七今年癸巳生父母上同京居婢二丁故興德奴命昌年丙午生父木手業尙母婢有禮已酉戶口相準印

行　牧使

準監官

唱色吏

道光二年七月 日 楊州牧

考壬午成籍戶口帳內北面伊洑生谷 第 統第 戶幼學睦亨中年五十四己丑生本泗川父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祖榮生父學生 祖顯祖通德郎恒敬曾祖繕工監監役官朝散大夫 天龜外祖學生李震秀本全州妻李氏玲五十一壬辰生籍慶州父學生 潤萬祖學生 瑗曾祖學生 世榮外祖通德郎李寅英本全州率子幼學 仁喆年二十五戊午生婦崔氏玲三十二辛亥生籍永原次子幼學 仁兢年二十二辛酉生次婦閔氏玲二十三庚申生籍驪興族侄幼學仁求年五十癸巳生

婢小化年甲戌生婢業今年壬子生父私奴孚金母班婢錄業婢七禮年戊子生父私奴士仁母班婢貴禮婢七今年癸巳生父毋上仝松都婢業丹年戊子生父良人業男母班婢業禮婢露丹年庚寅生父母上仝己卯戶口相準甲行 牧使

準 監官洪 氏
唱色吏李

11. 서간문

일명 서장(書狀), 서찰(書札), 간찰(簡札), 서한(書翰), 함찰(函札) 등으로 불리는 개인간의 내왕 서신을 말한다. 개인간의 내왕문서이므로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몹시 희귀한 형편이다.

12. 기 타

노비문서

이제까지 살펴본 문서 외에 문서의 형식 내용 등 수다한 종류의 각종 문서들이 고래로부터 전하여 내려오고 있어 사회 발전 연구에 다시 없는 실증적 자료가 되고 있는데 생연3동 11통에 거주하고 있는 강대식이 소장하고 있는 면암 최익현(崔益絃) 선생의 서찰은 구한말 의

병활동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또한 지행동의 목종대, 송내동의 최욱종, 내행동의 목승균과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등도 향토사 연구나 역사를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입안문

〈김 형 목〉

제 4 장 유적지

제 1 절 궁지(宮址)와 원지(院址)

1. 요석공주 별궁지

요석공주 별궁지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소요산 자재암에서 주석할 때,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을 데리고 와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조그만 궁을 짓고 원효대사를 모시며 수행하였다고 전해 온다. 허목(許穆)이 쓴 ≪소요산기≫에 기록된 궁지는 현재는 매표소를 지나 30m 정도 자재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잔디광장 입구 좌측 도로변에 요석공주 별궁지라는 화강암을 다듬어 세운 표석이 있다.

비신고 : 56cm, 폭 18cm, 두께 18cm

기일석 : 2단 가로 61cm, 세로 80cm

〃 : 1단 가로 133cm, 세로 98cm이다.

2. 이태조 궁지

허목(1595~1682)은 일찍이 현종 4년(1663)에 ≪소요산기≫를 지었는데 여기에 요석 공주궁지가 있고, 또 이태조 궁지가 있다고 기록하였다. 조선 태조가 이곳에 왕궁을 짓고 살았던 것은 사실이다. 태조(1335~1408)는 1392년에 고려를 멸하고 새 왕조를 열자, 1394년 4월에

고려 마지막 왕이던 공양왕 부자를 비롯하여 고려 왕족의 후예들을 모두 살해하는 전고에 없는 만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해 8월에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태조 행궁지

이 참혹한 만행의 과보인지 태조는 미구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최악의 참경을 당하게 된다. 자식들이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서로 살육을 자행하는 골육상잔의 참극을 목전에서 벌였다. 즉 태조 7년(1398) 8월 26일에 제5왕자 방원(芳遠)이 난을 일으켜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 소생의 제7왕자 방석(芳碩)과 제8왕자인 왕세자 방번(芳蕃), 동복 매부인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를 살해하였다. 이에 태조는 왕위를 방과(芳果, 定宗)에게 전하고 상왕(上王)으로 물러나 앉게 되는데 정종 원년(1399)에 다시 방원(후일 太宗)과 제4왕자 방간(芳幹)이 난투를 벌여 방간이 유배당하자, 정종은 한양의 지세가 불길해서 그렇다 하여 그해 3월 7일에 바로 구도(舊都) 개성으로 환도해 버린다. 이렇게 되니 태조는 자신이 버리고 떠난 개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내키지 않아 금강산 유점사로 들어가 숨으려 한다.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과부가 된 막내 공주인 이제의 처 경순공주(敬順公主)를 비구니로 만들고, 한양의 흥천사(興天寺)에서 신덕왕후를 비롯하여 방원에게 살해된 신덕왕후 소생의 아들들과 사위 등 자신이 무고하게 죽인 전조 왕씨들을 위해 수륙재를 베풀어 천도하는 대참회 불사를 거행한다. 그리고 오대산 · 보개산(寶蓋山) · 금강산으로 떠돌며 비명에 간 고혼들을 천도하는 일로 소일하다가 드디어 방원(太宗)이 왕위에 오르자 고향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구우(舊友)인 성석린(成石璘, 1338~1423) 등이 귀환을 권유하여 할 수 없이 환도하다가 결국 개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양에 가까운 소요산으로 숨어 버린다. 그래서 이곳에 태조가 거처할 왕궁을 세우게 되었다. 그때가 태종 원년(1401) 12월 17일의 일이다. 태조는 소요산에서 다음해 7월 8일까지 머물다가 6월 9일에는 천보산 회암사로 옮겨와 이곳에 머물게 된다. 이에 태종이 부왕께 조친하기 위해 자주 회암사로 행행하게 되자 의정부까지 따라 와 있게 되어 지금의 의정부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다 한다. 이런 연유로 해서 소요산에는 태조 왕궁터가 남아 있게 되었다.

이태조 궁지표석(李太祖 宮址表石)은 소요산 관리소 앞 잔듸밭에 표석이 서 있다(궁지가 이

곳은 아니나 궁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임).

비 고 : 56cm(이태조 궁지라고 각자되어 있다), 폭 : 18cm, 두 께 : 18cm

3. 사천현(沙川縣) 관터

사천현 관터

동두천시 상패동 사천마을에 관터〔官址〕가 있다.

원래 양주군 은현면은 묵은면의 은자와 사천현 현내면의 현자를 따서 일제시대에 은현면으로 명명되었다. 현내면이었던 상패1리(현 동두천시 상패동 사천마을)에는 사천현 관아자리가 20여 년 전까지도 지대석이 남아 있어 관터라고 불려 오던 것이 소지명이 되었다. 또 서쪽에는 옥담불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니 관아 근처에 죄인을 다스리는 옥이 있던 자리인 것 같다. 옥자리에 돌담불이 쌓였으니 옥담불이라고 불리었다. 이 옥담불자리는 지금 군사기지로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 또 근처에는 부연동이라는 10여호 되는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가마소 옆에 섰던 오리나무만 남아 있다.

옛날 사천현(沙川縣)자리는 사천리라 부르고 소지명으로 관터라고 부른다.

4. 원 지

원은 고려와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공무로 지방 등지에 출장나와 유숙(留宿)하는 숙소같은 곳을 뜻한다. 여행자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요로나 인가가 드문 곳에 유지비로 원위전을 주조했으나, 원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

세종 27년(1445)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원주로 삼아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주에게 대로(大路)이면 1결 35부(1결은 100부), 중로이면 90부, 소로(小路)이면 45부를 주어 원을 유지하게 하였다. 원은 한때 크게 번성하였으나

국한된 이용자로 인하여 후기에는 점차 쇠퇴해 갔다.

동두천동 240번지는 연천 · 철원 등지로 통하는 대로와 포천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길이 고려시대 이래로 나있던 네거리이다. 이 지역은 오랜 옛날부터 군사적 요충지이며 약 1km 떨어진 곳에 북창이 있었다.

이곳에 설치되었던 이담원은 자좌우향으로 자리를 잡았었고, 규모는 초석과 가와조각이 산재한 것으로 미루어 백여 간이나 된 듯하다. 그러나 150여 년 전에 원은 폐지되었고, 원이 있던 곳이라하여 '원터〔院址〕' 란 마을 이름으로 되었다.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제2절 사지(寺址)

1. 소요사지(逍遙寺址)

조선 숙종 때에 정치가이며 학자였던 미수 허목의 ≪소요산기(逍遙山記)≫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산중에 들어가면 산이 다 석(石)으로 석동도 되고 석증도 되고 석량도 되는데 나무는 소나무 · 단풍나무 · 철쭉꽃나무가 많다. 궁터 남쪽에는 산석이 극히 높고 험한데 최상에는 백운대(白雲台)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 중백운이 있으며, 또 동북하로 내려오면 백운이 중대상에 있으며, 궁좌도 있고 폭포도 있는데 높이가 아홉 길이나 되며 그 아래로 북편 기슭을 좇아 중치에 오르면 가장 큰 절이었는데 이제는 다 빈터 뿐이더라. 폭포 곁에는 절벽이 십여 길인데 나무를 가로질러 사닥다리를 했는데 원효대에 오르고 원효대를 지나면 소요사가 있는데" 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그 절터 뿐이다.

2. 현암사지

소요산의 자재암을 지나 독립암을 넘어 비탈길을 지나면 나한골이 나오고, 그곳에서 중백운대로 올라가는 우측에 나한대와 의상대가 솟아 있으며 상백운대로 연결되는 능선이 있어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다. 상백운대를 중앙에 두고 좌편으로 선녀탕과 비룡폭포가 있고 우측으로 절

벽이 장관인데 그곳에 현암사지(縣岩寺址, 일명 달암절터)가 있다. 절벽에 매달린 듯 있었다 하여 달암절이라고도 하고, 물을 달아 올려다 먹었다 하여 달암절이라고 하였다는 사명이 전해진다.

3. 회암사의 암자지(庵子址)

탑동의 탑골마을(일명 장림) 뒤편에 있다. 이곳은 해룡산 서록으로 회암사(檜岩寺)와의 직선거리는 약 1km 정도 못 미친다. 옛부터 구전되기를 회암사는 본래 9암자였는데 그 중 세 암자가 탑골마을에 있었다고 전해지며, 한 암자 터에는 5층 석탑과 좌상불상이 전해졌는데 탑은 1910년대에 일본인이 수탈해 가고 지금은 석불만이 남아(향토유적으로 지정됨) 옛날의 불교문화를 말해 주듯이 그 터를 지키고 있다. 다른 두 곳의 암자터에는 기와장이 출토되어 옛날부터 전해지는 구전을 입증해 보인다.

4. 안흥사지(安興寺址)

동안동 담안마을 뒤 서북간 마차산 밑에 있다. 구전에 의하면, 고려말에 어느 옹주의 묘를 이곳에다 쓰고 영혼을 달래기 위해 안흥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전의 이씨 세보 인물지에 보면 우암 송시열의 제자 이담이 안흥사 흥경암에서 학문을 닦아 급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 절이 없어진 시기는 200여 년쯤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지(1천여 평)에는 초석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고 기와장이 출토된다.

5. 큰 절골〔寺谷〕

광암동 개안마을(현재 미군 사격장)을 지나 세목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폭포가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북향으로 기암절벽이 펼쳐진다. 절벽으로 300여 미터 오르면 깍아지른 듯한 산세인데도 편편한 절터가 남아 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석탑과 여러 가지 석물이 남아 있었으나 일본인들이 수탈해 가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고 큰 절이 있던 곳이라 하여 큰절골이라는 이름만

전해진다.

6. 작은 절골

광암동의 개안마을(현재 미2사단 사격장) 북향 8부 능선에 있다. 이 절터 너머에는 불자들의 화장터가 있었다 하여 지금도 승수양곡 또는 승사리양곡이라고 부른다. 구전에 의하면 이곳이 회암사와 소요사의 중간 지점으로서 이 근방 사찰에서 죽은 중들을 화장하던 곳이라고 하며, 절은 죽은 스님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고, 이곳을 작은 절터라 부른다.

7. 낙우마을의 사지

해룡산의 서북미, 다시말해 탑동초등학교 앞에서 남동간 산중턱에 사지가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절골이라 부르며 산수가 아름다워 봄 · 가을이면 소풍지로 찾는 이가 많다. 특히 탑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지금도 이 사지에는 기와장과 초석이 남아 있다.

8. 해룡사지(海龍寺址)

해룡산 정상에 감지(鑑池)라는 못이 있었고 그 옆에 해룡사가 있었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이는 도시화로 많은 유적이 유실됨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 규 진〉

제 3 절 묘 역

1. 강효달(姜孝達)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하봉암동
소유자 : 강래석
재　료 : 토분 및 석물

2. 김협(金峽)선생 묘역

시　대 : 선조
소재지 : 걸산동 산
소유자 : 김영창
재　료 : 토분 및 석물

3. 김육(金堉)선생 묘역

시　대 : 선조
소재지 : 동두천동 창말 산
소유자 : 김영창
재　료 : 토분 및 석물

4. 김충렬(金忠烈)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패동 산7
소유자 : 강릉 김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 김몽상(金夢祥)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동안동 산 70
소유자 : 강릉 김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 김담(金潭)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하봉암동
소유자 : 김봉수
재　료 : 토분 및 석물

7. 김정려(金晶麗)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패동 산103-2
소유자 : 김녕 김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8. 김형종(金炯鍾)선생 묘역

시　대 : 현대
소재지 : 상패동 산
소유자 : 김형원
재　료 : 토분 및 석물

9. 김원(金沅)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광암동 산
소유자 : 김해 김씨 광암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10. 김홍주(金弘胄)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광암동 산
소유자 : 선산 김씨 광암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11. 김유지(金有智)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탑동 산 두목골
소유자 : 안동 김씨 광암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12. 김계(金桂)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탑동 동점 산145
소유자 : 청풍 김씨 탑동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13. 민홍(閔泓)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패동 산78
소유자 : 여흥 민씨 상패동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14. 목사흠(睦思欽)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지행동 산
소유자 : 사천 목씨 동두천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15. 목기선(睦嗜善)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생연동 능안
소유자 : 사천 목씨 동두천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16. 박장휘(朴長輝)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지행동 산 사당골
소유자 : 고령 박씨 지행동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17. 박주(朴綢)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하봉암동 산
소유자 : 박상민
재　료 : 토분 및 석물

18. 박소수(朴素守)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하봉암동 산
소유자 : 박상민
재　료 : 토분 및 석물

19. 박태기(朴泰期)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동두천 창리 산
소유자 : 박승돈
재　료 : 토분 및 석물

20. 박필구(朴弼求)선생 묘역

시　대 : 조선시대
소재지 : 보산동 산17의 1
소유자 : 반남 박씨 세양공 동두천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21. 방희진(方曦進)선생 묘역

시　대 : 고려 중기
소재지 : 지행동 산 화봉
소유자 : 온양 방씨 중앙화수회
재　료 : 토분 및 석물

22. 방걸(方乞)선생 묘역

시　대 : 고려시대
소재지 : 지행동 산 화봉
소유자 : 온양 방씨 중앙화수회
재　료 : 토분 및 석물

23. 방만년(方萬年)선생 묘역

시　대 : 고려
소재지 : 지행동 산 화봉
소유자 : 온양 방씨 중앙화수회
재　료 : 토분 및 석물

24. 방륜(方輪)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1473-1548)
소재지 : 생연동 황말음 산
소유자 : 온양 방씨 중앙화수회
재　료 : 토분 및 석물

25. 신용개(申用漑)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상패동 마고개
소유자 : 고려 신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26. 신응구(申應榘)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패동 마고개
소유자 : 고려 신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27. 신발(申撥)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패동 마고개
소유자 : 고려 신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28. 신익상(申翼相)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상패동 마고개
소유자 : 고려 신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29. 신양(申湸)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패동 마고개
소유자 : 고려 신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30. 송각(宋珏)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탑동 산6번지
소유자 : 송세영
재　료 : 토분 및 석물

31. 심언천(沈彦千)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광암동 산
소유자 : 청송 심씨 동두천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32. 심한걸(沈漢傑)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광암동 산
소유자 : 청송 심씨 동두천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33. 안방경(安方慶)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지행동 산
소유자 : 죽산 안씨 지행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34. 어승진(魚昇進)선생 묘역

시　대 : 고려 말
소재지 : 탑동 동점 산
소유자 : 충주 어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35. 어득해(魚得海)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광암동 좌기골
소유자 : 충주 어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36. 어계장(魚季章)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송내동 산
소유자 : 함종 어씨 동두천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37. 유숙영(柳淑永)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안흥동
소유자 : 문화 유씨 동두천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38. 이지운(李祉運)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광암동 내촌
소유자 : 광주 이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39. 이기조(李基祖)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광암동 내촌
소유자 : 광주 이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0. 이기풍(李基豊)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생연동산
소유자 : 광주 이씨 어수동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1. 울산 박씨(蔚山朴氏)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탑동 제1봉 하
소유자 : 벽진 이씨 탑동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2. 이수(李垂)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탑동동
소유자 : 벽진 이씨 탑동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3. 이상경(李商卿)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래동
소유자 : 전주 이씨 덕천군 파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4. 이세근(李世瑾)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가정자 산
소유자 : 벽진 이씨 동두천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5. 이세진(李世璡)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가정자 산
소유자 : 벽진 이씨 동두천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6. 이직간(李直幹)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안흥동 산
소유자 : 전의 이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7. 이굉식(李宏植)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안흥동 산
소유자 : 전의 이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8. 이자(李梓) 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안흥동 산
소유자 : 전의 이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49. 이혼(李混)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내안흥 산
소유자 : 전주 이씨 장천군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0. 이덕룡(李德龍)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내안흥 산
소유자 : 전주 이씨 장천군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1. 이장혁(李鏘赫)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지행동 산53
소유자 : 전주 이씨 효녕대군 지행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2. 이진중(李鎭中)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지행동 매봉
소유자 : 전주 이씨 주부동정공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3. 윤원석(尹元碩)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송내동 안골
소유자 : 윤찬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4. 이달준(李達俊)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탑동 조산
소유자 : 전주 이씨 무림군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5. 이중경(李重庚)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동두천동 창말
소유자 : 전주 이씨 효녕대군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6. 정이주(鄭以周)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동안동
소유자 : 광주 정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7. 정사호(鄭賜湖)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안흥동 산
소유자 : 광주 정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8. 정명호(鄭明湖)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안흥동 산
소유자 : 광주 정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59. 정치상(鄭致相)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안흥동 산
소유자 : 광주 정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0. 정락(鄭洛)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마차산 남록
소유자 : 동래 정씨 상패동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1. 조진주(曺進周)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광암동 산15
소유자 : 창녕 조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2. 조하석(曺夏錫)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광암동 산24
소유자 : 창녕 조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3. 조중려(趙重呂)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패동 산
소유자 : 한양 조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4. 조종면(趙宗冕)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패동 산
소유자 : 한양 조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5. 조종저(趙宗著)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1631-1690)
소재지 : 상패동 산
소유자 : 한양 조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6. 최영(崔瀛)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상봉암동 산 51
소유자 : 수성 최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7. 최태석(崔泰錫)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말기
소재지 : 하봉암 말터고개
소유자 : 수성 최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8. 허란(許蘭)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하봉암동 산
소유자 : 양주 허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69. 허수(許售)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하봉암동 산
소유자 : 양주 허씨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70. 홍약(洪約)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생연동(샛골) 산
소유자 : 남양 홍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71. 홍정로(洪貞老)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생연동(못골) 산
소유자 : 남양 홍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72. 홍결(洪潔)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생연동(못골) 산
소유자 : 남양 홍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73. 홍준(洪濬)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생연동(못골) 산
소유자 : 남양 홍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74. 한흡(韓潝)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상패동 부곡
소유자 : 청주 한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75. 한상찬(韓相瓚)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후기
소재지 : 송내동 산
소유자 : 한상은
재　료 : 토분 및 석물

76. 황신중(黃愼中)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탑동 산
소유자 : 창원 황씨 탑동 문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77. 황계조(黃繼租)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초기
소재지 : 생연동(못골)
소유자 : 평안 황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78. 황서(黃瑞)선생 묘역

시　대 : 조선 중기
소재지 : 생연동(못골) 산
소유자 : 평해 황씨 종중
재　료 : 토분 및 석물

〈조규진〉